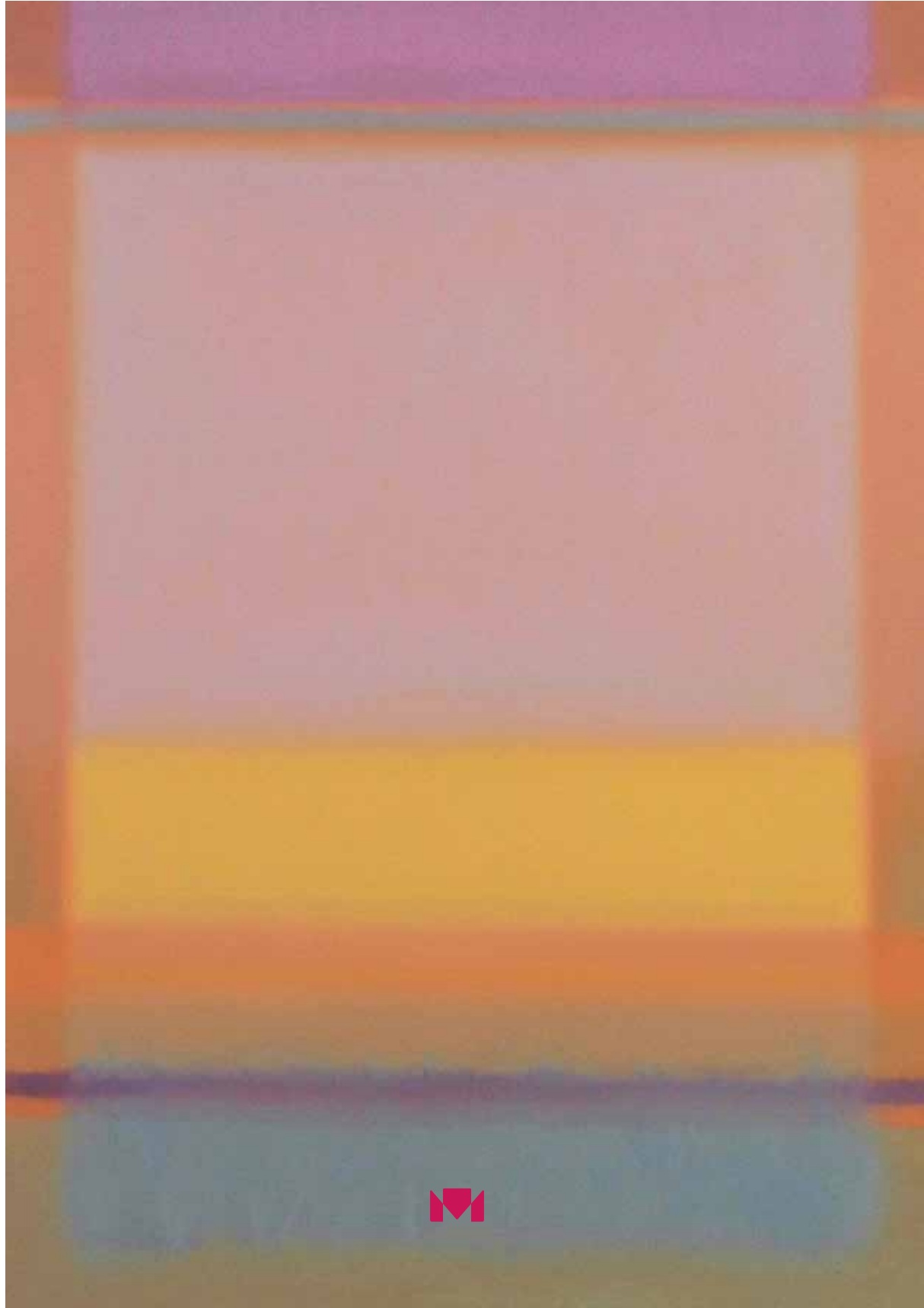


mécé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 메세나 | 2018 AUTUMN VOL. 104

+ THEME MECENAT

일과 삶의 균형
문화예술로 해답을 찾다



동서식품

READY.
GET SET.
GO.

지금까지의 10년은
준비였을 뿐

10년의 퀄리티로
티오피답게, 다시



LIMITED EDITION

Maxim T.O.P.
ESPRESSO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Leeum

Beyond and Between

동양과 서양이 만나 세계로 나아가고
과거와 현재가 만나 미래를 모색하며,
전통과 혁신이 만나 더 큰 감동을 전달합니다.
시대와 장르가, 거장과 관객이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며 하나되는 곳
마침내 리움에서 만나게 되는
예술, 그 사이와 너머

Samsung Museum of Art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55길 60-16 www.leeum.org

LEEUM

CONTENTS

일과 삶의 균형, 문화예술로 해답을 찾다

테마기획

칼럼

행복한 사회의
필수조건

‘일과 삶의 균형’,
기업에게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가?



인터뷰

문화예술을
가까이,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인포그래픽

일과 삶의
균형,

문화예술의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



메세나 통권 104호

발행일 2018년 9월 12일

발행인 김영호

발행처 한국메세나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7(여의도동 13-31)

기계산업진흥회 본관 6층

Tel. 02-761-3101~2

기획 한국메세나협회 경영기획팀

제작 디자인소호

가격 5,000원

홈페이지

한국메세나협회 www.mecenat.or.kr

기업과 예술의 만남 www.aandb.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ecenat.korea



작품_《FROM》 Oil on Canvas, 72.7×50.0cm, 2016년

“오래전 처음 조우했던 바다의 잔상은 흐리지만 지금도 그 시간과 공간속의 느낌은 살아있습니다. 때론 분명하지 않는 것이 더 오랫동안 선명하게 남는 듯합니다. (중략) 익숙하고 분명한 바다가 아닌 모호하게 그려진 바다지만 당신의 내면에서 분명한 바다로 기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작가노트 중에서

작가_전봉열

전봉열 작가는 대구예술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서울과 대구, 부산 등에서 개인전과 초대전을 가졌고, 중국 상하이에서 초청을 받아 전시를 하기도 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국내외 단체전과 기획전에도 다수 참여했고, 정부중앙청사 내 행정자치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등에서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계간 <메세나>는 신진 예술가를 널리 알리고 현대미술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신진 미술 작가의 작품을 표지에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메세나 포커스

- 16 **이슈 & 브리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 6년 만에 감소
- 메세나 스토리**
- 18 ‘자립과 의존의 딜레마’ 예술 후원에 대한 루소의 이상과 현실
- 메세나 스토리**
- 22 21세기 지속가능한 오케스트라를 꿈꾸며 변화를 일으키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강은경
- 26 **해외 메세나**
문화도시 재생으로 도시 정체성을 살린다
마르세유 · 포르투 · 취리히
- 30 **메세나 갤러리**
Weather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
디뮤지엄
- 34 **전통과 현대의 조우**
창공을 날아오르고 싶은 꿈,
인간의 염원을 실었던 ‘연’




문화 CSR

- 38 **메세나 가까이 보기**
사회적 미션을 해결하는 기업가를 찾는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 오디션’
- 내 손으로 만드는 미래도시
LG연암문화재단 ‘LG 영메이커 아카데미’
- 시대를 잇고 문화를 익히는 예술작업
한성자동차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 배우고 가르치고 다시 성장하는 음악캠프
한화그룹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2018 음악캠프’
- 과자로 얼굴을 만들고,
아쟁도 배워보는 특별한 여름방학
크라운-해태제과 ‘크라운해태 K-arts 국악캠프’
- 44 **기업-예술 파트너십**
음악 영재가 예술가가 되는 그날까지,
지원은 계속된다
KT&G장학재단 ‘메세나 음악분야 장학사업’
- 암 경험자에 대한 공감과 소통의 무대
올림푸스한국 & 예술의전당, 한국혈액암협회
- 아름다운 공존! 에코리더가 되자
〈헬로 초록씨〉
플레이즈파크 & 헬로우뮤지움
- 침체된 도시를 밝히는 그래피티 아트
제이앤비글로벌기획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함께하는 메세나

- 48 **회원사 소식**
회원사 단신
- 50 **문화 캘린더**
공연 · 전시 일정 소개
- 52 **회원사 소개**
회원사 및 회비 납입사 소개





일과 삶의 균형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의 해법으로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이슈가 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모색하는가 하면, ‘소확행’·‘올로’ 등이 트렌드로 자리잡으며 점차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일과 삶의 균형 관련 정책과 국내외 활용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야기해본다.

칼럼 행복한 사회의 필수조건 '일과 삶의 균형',
기업에게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가?
글. 윤소영

인터뷰 문화예술을 가까이,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인터뷰이. 나기주

인포그래픽 일과 삶의 균형,
문화예술의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
글. 편집부

문화예술로 해답을 찾다

행복한
사회의
필수조건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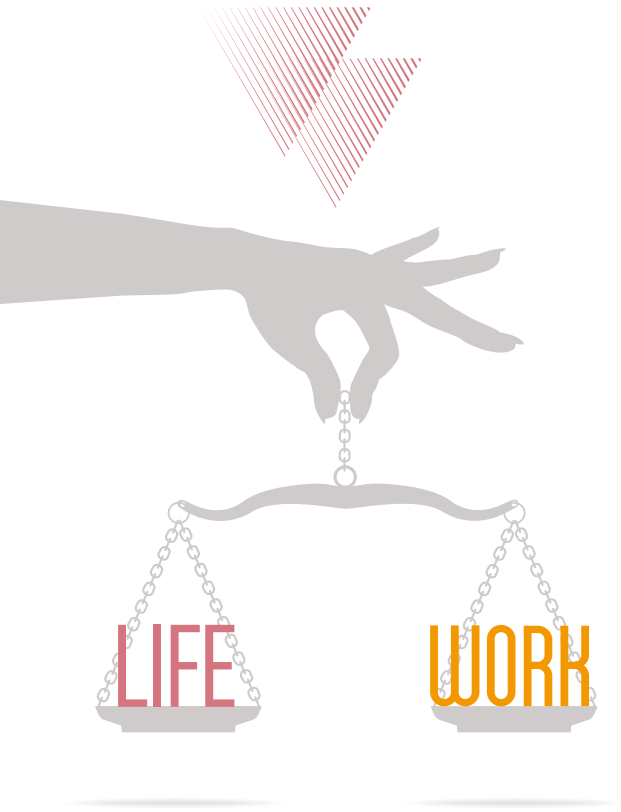
‘일-
삶의 균형’

기업에게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가?

생활 속에서 일과 가족, 일과 여가 등 일 이외의 영역에 시간과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에너지를 적절히 배분하여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상태를 이루는, 즉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이루는 것이 행복의 조건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이다.



문화예술은 생애주기 초반에 경험하고, 이후 그 경험이 지속되어야 생애주기 중반이나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재현될 수 있다.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는 종종 '언제 행복한가?'라고 질문해본다. 사람들은 언제 행복한 걸까? 무엇을 해야 행복한가? 이에 대해 경제학자 에드윈 셀리그먼(Edwin Robert Anderson Seligman)은 <진정한 행복>이라는 책에서 규칙적으로 즐거움을 경험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그리고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할 때 행복하다고 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러한 행복의 세 가지 조건도 균형 잡힌 역할체계에 생활을 살지 못하게 되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고, 이후 균형적인 생활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이들이 균형적인 삶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 실제 한국인의 생활시간을 분석해보면, 학령기에는 학습중심적인 생활을 하다가 취업이나 결혼 연령기에는 노동시간이나 자녀양육, 가정관리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은퇴 이후에는 갑자기 늘어난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연령에 따라 생활 영역이 집중되는 현상을 '연령차별적 사회의 구조'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앞으로 일(학습)-가족-여가 등의 삶의 영역이 생애주기 동안 균형적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는 연령통합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유아기나 아동기, 심지어 청년기를 거치면서 문화예술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은퇴 후에 갑자기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하고 싶었던 문화예술의 향유나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연결된다. 이를 여가경력(Leisure Career)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더 쉬운데, 즉 생애주기 초반에 경험하고 향유한 경험이 지속되어야 생애주기 중반이나 후반기에도 계속되고 반복해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에 다니는 40대 부모들이 지금은 바빠서 음악 활동이나 그림그리기를 할 수 없지만, 은퇴 후에는 꼭 해보고 싶다'는 바람은 그저 생각으로 그치기 쉽다. 경험과 경력이 없는 중년들이 정보도 부족하고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지나치는 사례를 종종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여가경력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의 경험과 스포츠 활동 등 여가생활을 경험하고 이를 위해 시간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노동시간이 여전히 길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노동시간(직장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나머지 생활, 즉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자신의 문화예술 경험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첫째, 업무공간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가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필요하다. 충분히 재충전을 한 뒤 다시 열심히 일하는 패턴을 만들어야 한다. 스마트 워크, 탄력출퇴근제, 정시퇴근제 등과 같은 유연근무제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이 이러한 저녁이 있는 삶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또 다른 전략으로는 여가생활을 업무공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다.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업무 성과를 올리자는 취지인데, 현재 IT업종을 중심으로 내 집 같은 사무실 환경을 만들고, 사무공간 내 개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이나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하는 방법이 여기에 속한다.

기업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시도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여가관리 전략들을 심분 활용하고 있다. 정시퇴근제나 유연근무제를 통해 노동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은 물론, 휴가사용이나 가족의 날 지정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관리를 하도록 도와주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 이를 권장하는 가족친화인증제나 여가친화기업 우수사례 등의 제도도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기업의 공간을 근로자들이 함께 고민해서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지역민들과 함께 문화예술의 경험을 나누는 전시·공연 공간으로 개방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을 정착시키기 위



기획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늘어나게 됐다. 그 중심에 문화예술 활동이 있었으며, 한번 경험해 봄으로써 지속하여 나타나는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제도는 있으나 성공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다. B기업은 유명한 IT기업인데, 사내에 직원들을 위한 휴식공간, 문화공간, 게임공간 등을 만들어 외부인들이 부러워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그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과다한 업무로 그 공간을 쉽게 접하거나 이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원하는, 제안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큰 행복은 실천과 경험에서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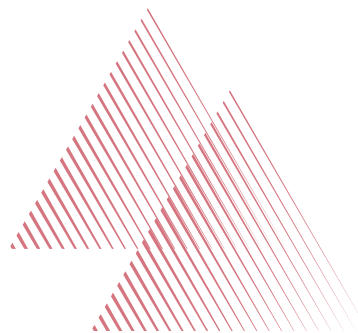
최근 트렌드인 ‘소확행(小確幸·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나 ‘올로(YOLO: You Only Live Once)’라는 단어로 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이 회자되고 한다. 한번 사는 삶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말이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삶과 경험이 필요하다.

결국,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실제 실천하고 경험함으로써 개인적인 행복감을 맛보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문화예술 경험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자신에게 맞는 활동들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도 기업이나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지난 7월 1일, CGV가 연합뉴스와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영화관람 횟수를 늘릴 의향이 있었다. 우리나라 문화향유율의 가장 많은 빈도를 영화관람이 차지하고, 공연이나 창작활동 등의 참여율은 낮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화관람이 가장 저렴하고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라면, 다른 창작활동이나 문화적 경험도 저렴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예전에 방문한 C기업의 경우는 회사 지원을 받아

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조직문화의 조화가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경영상에 새로운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며,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 균형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행복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이를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필자가 방문한 기업 중에는 최고 경영자가 바뀌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외국과 무역을 주로 하는 A기업은 새로운 대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미술작품에 대한 관심을 모든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사무공간에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가를 고용하며, 정기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 전문적인 미술관련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는 교대로 외부로 나가 개인적으로 미술품이나 공연을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제도로 정착하게 했다. 처음에는 다소 부정적이었으나 모든 구성원들에게 활력을 주어 생기 넘치는 기업문화로 정착됐으며, 이직률이 낮아지고 직원들 스스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실제 실천하고 경험함으로써 개인적인 행복감을 맛보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문화예술 경험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자신에게 맞는 활동들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도 기업이나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직원 일부가 록밴드를 결성해 사옥 옥상에 마련된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연습했다. 얼마 후 아마추어 록밴드 페스티벌에 나가 수상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회사 창립일에 초청 공연을 하며,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과 결연을 맺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무대를 열었다. 초기에 일부 관심 있는 멤버들로 시작했는데, 입소문과 공연을 보고 예전에 연주를 해봤거나 관심이 있는 직원들이 오디션을 보러온다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한편 D기업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회사 안에 동아리방을 만들어 그림그리기, 가족공예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직원들의 작품을 일부 전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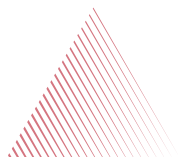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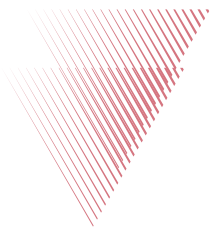
이러한 기업의 공통점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자 하는 기업의 의지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만들어가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면서 그 기업만의 독특한 문화로 정착되어 간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이 작은 변화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근로자들 개인의 행복과 가정생활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기업은 생산

성이 높이며 이직률을 낮추는 등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문화예술의 경험을 높이는

새로운 문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더 이상 60세 전에 은퇴하는 일만으로는 시간을 메우고 살기 어렵게 됐다. 일찍 은퇴하면 할수록 스스로 즐기고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문화예술의 경험을 통해 즐거운 노후를 보내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도 마음을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의 경험을 높이고, 일로 바쁜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삶 전체가 풍요롭고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화예술의 경험이나 취미오락 활동이 삶의 작은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문화로 여기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길 희망한다. ▼▼



문화예술을
가까이,

일과 삶의 인터뷰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우리 문화예술 발전과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활동해온 나기주 지역문화진흥원 원장을 만났다.
근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커가는
가운데, 그에게서 문화예술을 통한 일·생활 균형의
모색, 현장에서 생각한 생활문화 정책과 사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나기주 지역문화진흥원 원장

2009 ~ 2011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실 뉴미디어산업과장
2009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실 출판인쇄산업과장
2011 ~ 2012 국립국어원 기획관리과장
2012 ~ 2016 한국영상자료원 사무국장
2016 ~ 지역문화진흥원 원장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문화소비 여력 늘어

최근 기업과 직장인들의 화두는 일과 삶의 균형 (Work & Life Balance: 워라밸)이다. 예전에는 구직자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대체로 기업 규모가 크고 보수가 많은 직장을 선호했다면, 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이 직장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나기주 원장은 “이제 직장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기업에서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직원들의 생산성과 창의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경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욱이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기주 원장의 말대로 기업들은 워라밸을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 시간을 연장하는 등 국민의 삶 만족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기획·실행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워라밸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예로 커뮤니티 활동

을 인터넷으로 매개하고 연결해주는 ‘트레바리’*, ‘2교시’** 같은 기업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일 것이다.

언론에 의하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지난 7월 한 달간 공연 관람, 도서 판매 실적이 크게 상승했다 (표 참조).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변화이고, 앞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7월 문화소비 전월 대비 규모

공연		도서	
뮤지컬	18.2▲	교보문고	20.7▲
연극	10.5▲	예스24	19.2▲
무용/전통예술	9.5▲	영풍문고	10.0▲

(단위: %, 자료: 인터파크)

* <https://trevari.co.kr>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토론을 나누는 지적 대화 모임

** <https://www.2gyosi.com> 자기계발, 취미생활을 연계시켜주는 직장인 모임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정책제도의 정비

우리나라에서 워라밸이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관련 법안이 제정된 것은 대략 4~5년 안팎이다. 2014년에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고, 이 법을 근거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시행됐다. 생활문화 정책의 첫 단추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이었다. 올해까지 전국에 142개를 건립하는데 연습 공간과 공연·전시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문화 활동 공간으로 구성된다.

또 하나의 제도는 문화기본법령에 따라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 시행을 위해 지역문화진흥원은 영화관을 비롯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문화예술에 소외된 지방을 위주로 한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 젊은 유망 청년 예술가들이 하는 버스킹 공연인 청춘마이크 사업, 직장을 찾아가 공연 등을 하는 직장 문화배달 사업 등도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속한다. 나기주 원장은 워라밸 관련된 외국의 우수 사례로 영국의 ‘볼런터리 아트(Voluntary Arts)’ 사업을 설명한다.

“볼런터리 아트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생활 속 문화 예술을 확산시키는 기관이라 할 수 있어요. 볼런터리 아트는 2016년부터 공영방송국 BBC와 함께 영국의 생활문화 활동 장려를 위한 공공 캠페인 ‘Get Creative’를 시행하고 있고, 이 밖에 홍보, 저작권 공유,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적절한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민간단체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생력을 키우고자 ‘비영리단체 지원법(Charity Law)’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기부금 모금, 그리고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부러운 일이죠.”



지역문화진흥원은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을 비롯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생활문화가 활성화 되면 우리나라 문화예술 토대를 공고히 하는 것이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 문화예술이 발전하게 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해진다.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방법

나기주 원장은 우리나라의 워라밸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외에,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한국메세나협회의 역할에 대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하고 많은 기업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폭넓게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또 기업에서도 구성원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창의성과 감수성이 높아져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흥원에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사업장으로 찾아가 예술 공연을 하는 ‘문화가 있는 날, 직장 문화배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여러 기업들이 이와 같은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보거나 기업 내의 직장인으로 구성된 예술 동호회를 활용하여 공연을 하는 등 좋은 사례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대단히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생활문화가 활성화 되면 우리나라 문화예술 토대를 공고히 하는 것이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 문화예술이 발전하게 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1년 전부터 하모니카를 배우고 있다는 그는 “문화예술계에 오래 몸담았어도 행정 분야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연주 실력과 소양은 잘 늘지 않는다”며 웃는다. 그렇지만 하고 싶었던 것이고, 현재 가장 적합한 것이면서 앞으로도 가치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즐겁게 실력을 쌓고 있다고 한다.

“워라밸을 추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행을 하거나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들 수 있어요. 자기계발을 위해 독서를 하거나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것, 취미 활동으로 동호회 모임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물론 워라밸이 문화예술만을 즐기고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다른 이들과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화예술은 개인의 행복 뿐 아니라 사회를 건전하고 따뜻하게 만들고 국가의 위상까지도 높여주죠.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문화예술을 통해 워라밸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일과 삶의 균형,

인포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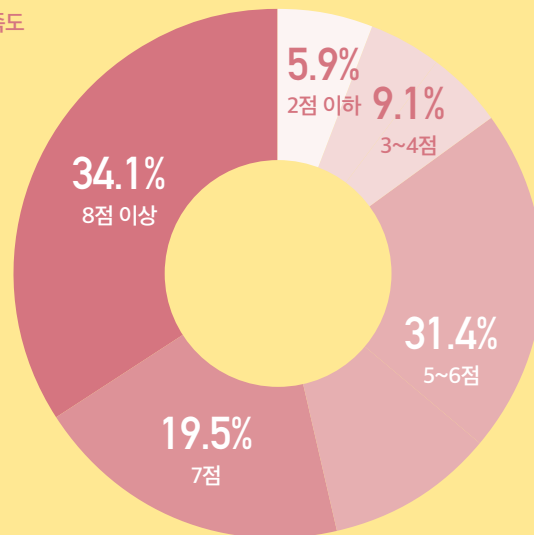
문화예술의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8 삶의 질 여론조사 보고서>

최근 사회경제적인 불안으로 현재 삶에 가치를 두는 생활양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중시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통해 행복한 일상을 누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문화예술의 주무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8 삶의 질 여론조사 보고서>가 있어 소개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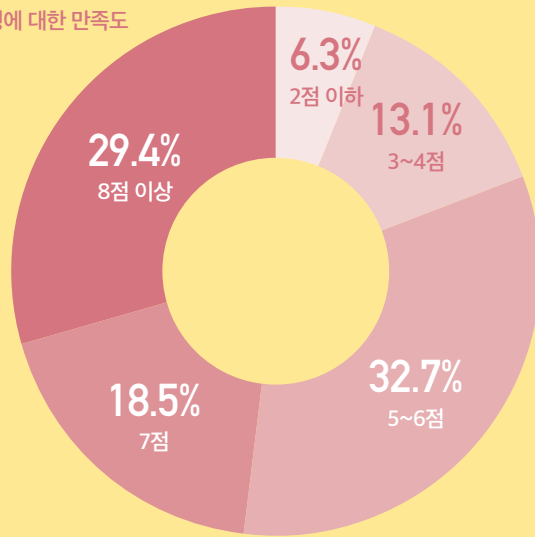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평균 6.4점(10점 만점 기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현재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반적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8~10점)'의 응답 비율은 34.1%, '비교적 낮다(0~2점)'의 응답 비율은 5.9%로, '만족도가 낮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10점 만점에서 절반을 넘는 높은 점수인 7점 이상을 준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의 50%가 넘는 상황이다(아래 도표 참조).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10점 만점)



조사대상 중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998명에게 현재 자신의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8~10점)'는 응답 비율(29.4%)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0~2점)'는 응답 비율(6.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아래 도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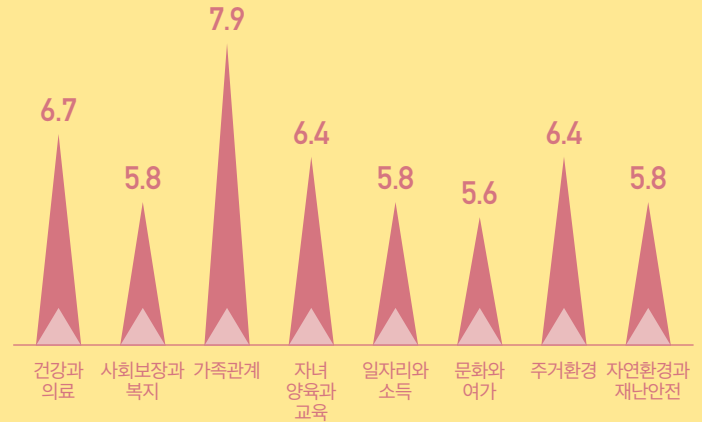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만족도
(10점 만점)



특히 현재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비교한 결과, 일과 생활의 균형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8~10점)'는 응답자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7점인 반면, 일과 생활의 균형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0~2점)'는 응답자는 2.8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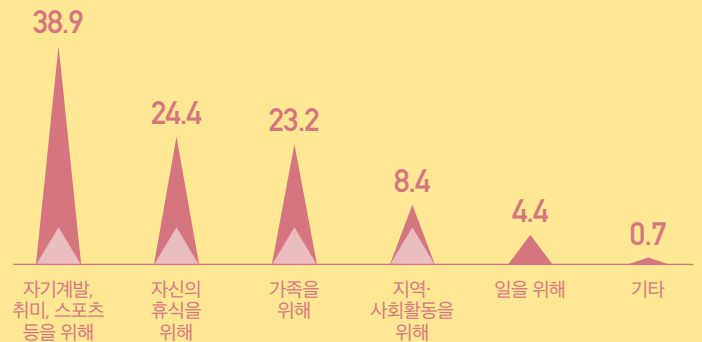
주목할 것은 분야별 삶의 질 만족도다. 만족도가 높은 부문은 가족관계(7.9점)-건강·의료(6.7점)-자녀양육·교육-주거환경(이상 6.4점) 순이었으며, 문화·여가생활 (5.6점) 만족도는 최하 수준이었다. 문화와 여가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오르는 경향이 나타났다(오른쪽 도표 참조).

8대 영역별 삶의 만족도
(10점 만점)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현재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쓰겠는가?'라는 질문에 '자기계발, 취미 등을 위해'라는 응답 비율이 38.9%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이것은 문화예술 참여와 연계된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아래쪽 도표 참조).

현재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시간을 쓰고자 하는 분야
(단위 %)



정부는 여가를 통한 '일과 삶의 혁신적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6월 5일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은 민간을 포함해 범정부, 중앙·지자체 등의 협력을 통한 여가기반 구축,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국민 참여 확대, 사회적 약자의 여가 기회 보장으로 '공평한 행복' 추구를 기본방향 삼아 구성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확대, 노동시간 총량 관리, 근로자 휴가권 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하고 있어 기업 부문에서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2017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발표

한국메세나협회가 조사한 ‘2017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2017년도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2016년 대비 4.1%(82억 6천9백만 원) 감소한 1,943억 1천2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 6년 만에 감소

2017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 및 건수, 모두 감소

‘2017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를 살펴볼 때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가 감소한 것은 6년만의 일로, 지원 규모 뿐 아니라 지원 건수도 2016년 대비 3.3% 감소한 1,415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원 기업의 수가 533개사로 2016년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소액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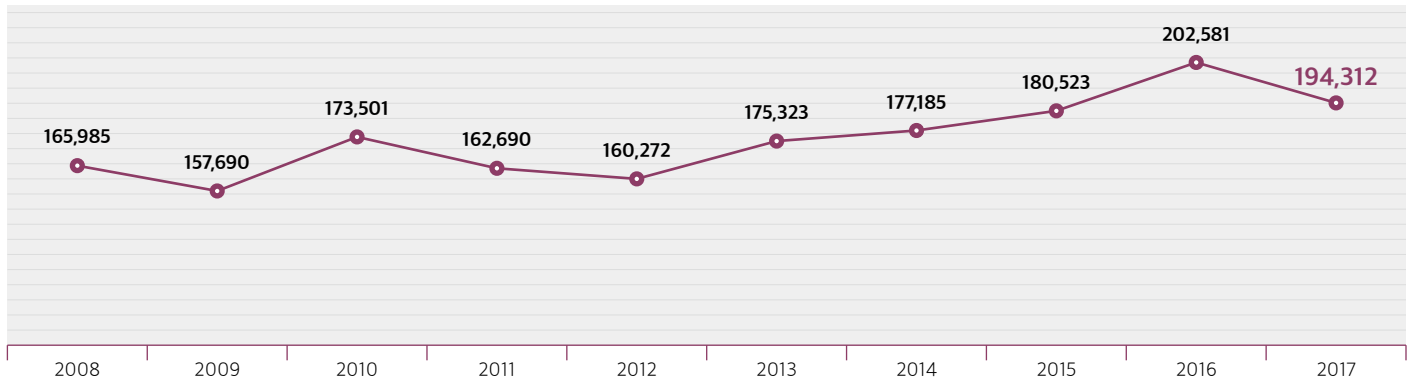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유형별 상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전시를 지원하는 후원·협찬·파트너십 등에 투입된 금액이 373억 원으로 2016년 대비 86억 원(▼18.8%)가량 감소했다. 이와 같은 감소세는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선물 상한액 5만 원을 초과하는 공연초대, 티켓 구매를 조건으로 한 협찬 활동 등이 위축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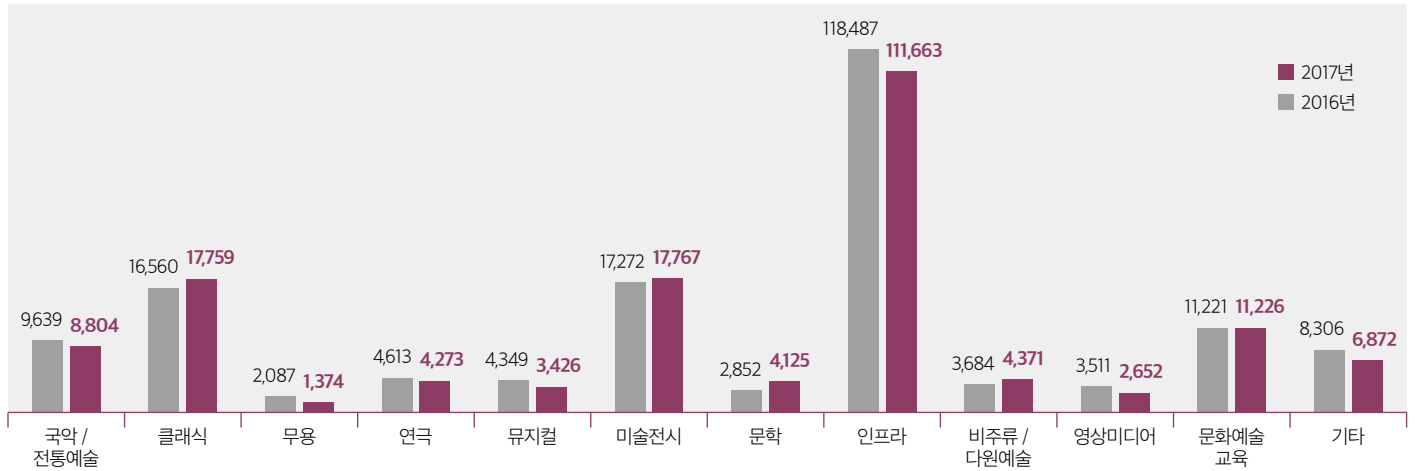
기업 출연 재단을 통한 지원금액의 감소 역시 전체 지원 규모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기업 출연 재단은 기업 예술지원의 주요 창구 역할을 해왔는데, 재단을 통한 예술지원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7년 조사에서는 2016년 대비 6%(54억 7천만 원)가 감소한 864억 7천6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미술관과 콘서트홀 등 기업 출연 재단이 운영하는 문화예술 인프라 지원금액 역시 2016년 대비 5.8%가 감소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2016년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 이후 기업들의 기부금 집행에 대한 내부 기준을 강화하고, 기부금을 축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조선업과 철강 산업의 불황으로 인해 조선 및 중공업 산업군의 지원 규모가 46억 9천2백만 원 감소한 것도 2017년 예술지원금액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인프라 지원액이 1,116억 6천 3백만 원(▼5.8%)으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인프라 지원은 2016년과 비교하면 감소했으나 총 지원금액의 57.5%의 비중을 차지해 여전히 기업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2017 기업문화예술지원 규모

(단위 : 백만 원)





다음으로 미술·전시(177억 6천7백만 원)는 소폭 증가(▲2.9%)했다. 미술상, 작가 후원 등의 지원과 함께 대형 백화점 등 유통업을 중심으로 진행된 아트 콜라보레이션 등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전시 초청 등 사회공헌 사업에 미술을 활용해 지원한 사례가 두드러졌다.

클래식 분야는 177억 5천9백만 원이 지원되어 2016년 대비 7.2%가 증가했다. 이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첫해 전통적으로 기업 후원이 많았던 클래식 분야 지원이 급감했으나, 2017년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중단됐던 기업의 후원이 회복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전체적인 기업 예술지원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112억 2천6백만 원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교육과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등 교육 사업이 지속해서 이루어졌고,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매개자 교육, 아카데미 사업 등 성인 대상 예술교육 지원이 확대 됐다. 이처럼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범위가 다양해진 것은 예술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다.

비주류·다원예술 분야(▲18.6%)와 문학(▲44.6%) 분야는 전년 대비 지원 규모가 증가했다. 특히 비주류·다원예술 분야의 증가는 사회 전반적으로 융·복합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가 예술계에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상대적으로 기업의 지원이 취약한 분야인 국악·전통예술(▼8.7%), 연극(▼7.4%), 뮤지컬(▼21.2%), 영상·미디어(▼24.5%), 무용(▼34.2%)에 대한 지원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감소했다.

개별기업 부문 1위는 KT&G, 기업 출연 재단 부문 삼성문화재단 1위 유지

지원 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부문에서는 흥대·춘천·논산 등에서 상상마당을 운영하고 있는 KT&G가 1위를 차지했고, 기업 출연 재단 부문은 삼성문화재단이 1위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출연한 재단의 지원 총액은 864억 7천6백만 원으로 전체 문화예술 지원금액의 4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개별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총액은 1,078억 3천5백만 원(55.5%)이었다.

2017년도 문화예술 지원 상위 10개 재단 및 기업

순위	재단	기업
1	삼성문화재단	KT&G
2	롯데문화재단	현대백화점
3	LG연암문화재단	롯데백화점
4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신세계백화점
5	두산연강재단	현대중공업
6	CJ문화재단	현대자동차
7	GS칼텍스재단	부산은행
8	현대차 정몽구 재단	크라운-해태제과
9	대산문화재단	KT
10	SBS문화재단	삼성화재

기업-예술계-정부의 파트너십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야 할 때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가 감소세로 접어든 2017년 이후 저성장·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정치적 악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따라서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타개해 나가며 기업과 문화예술이 상생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호혜적이고 일방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예술계와 함께 호흡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정부도 기업과 문화예술계와의 상생적인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을 독려하는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문화예술 지원을 독려하는 대표적인 제도적 방안인 문화접대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인지도를 제고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이 감소한 것을 확인한 만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이 지닌 사회적 중요도를 고려해 융통성 있는 법 해석 및 적용을 통한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접대와 사회공헌의 비용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농축산물의 경우처럼 예술소비 촉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기업, 문화예술, 정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상생과 협력을 이끌어내어야 할 때다. 이를 통해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난제 속에서도 문화예술계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기를 기대해본다. ▣

‘자립과 의존의 딜레마’

예술 후원에 대한 루소의 이상과 현실



01

중세에서 근대 사회로의 재편이 본격화되는 18-19세기, 장 자크 루소를 중심으로 한 계몽사상가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과거와 달라진 사회문화 양상 속에서 예술 후원은 어떻게 변모했을까? 이때의 예술 후원에는 어떠한 작동 원리가 있었는지, 당대 문인 사회를 중심으로 예술가 사회의 단면을 살펴본다.

18세기 프랑스의 문인 사회와 후원 문화

01

조프랭 부인의 살롱에서 책을 낭송하고 있는 볼테르의 모습이 보인다. 샤를 가브리엘 르모니에(Charles-Gabriel Lemonnier)의 그림 <La Lecture chez Madame Geoffrin> ©Sothebys

02

당대의 저명한 화가 라르질리에르(Nicolas de Largillier)가 18세기 프랑스 사교계를 주름잡던 랑베르 후작부인의 초상을 그렸다. ©Sergey Prokopenko

03

18세기 프랑스 철학과 문학을 대표하는 볼테르의 초상. 철학소설과 역사 작품으로 이름 높았던 그는 유럽의 여러 왕족과 귀족들의 애호를 받았다. 라르질리에르가 그린 초상화다. ©Musée National du Chateau de Versailles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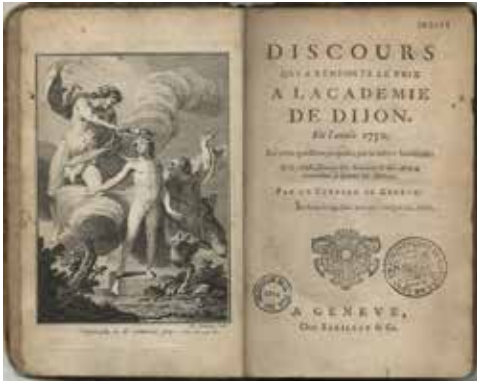
1715년 루이 14세의 사망 후, 프랑스 왕실은 베르사유를 떠나 파리에 정착했다. 귀족들도 왕실을 따라 파리로 귀환했다. 루이 14세의 엄격하고 위계적인 궁정문화에 숨이 막혔던 귀족들은 파리에서 자유롭고 경쾌한 문화를 추구했다. 새로운 사상과 실험에 매료된 그들은 각기 후원자를 자처하며 학문과 예술을 후원했다. 재정가, 의사, 법률가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던 부유한 부르주아들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귀족과 부르주아의 적극적인 후원 덕분에 파리의 학문과 예술은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워졌다. 베르사유 대신 파리가 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특히 철학과 문학은 전 유럽을 비추는 새로운 빛이 됐다. 18세기 파리에서 계몽사상이 꽃피게 된 데에는 철학자들과 문인들을 후원한 이들의 역할이 주효했다.

도서 감독관이던 조제프 데메리(Joseph d'Hémery, 1722~1806)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1748~1753년 동안 파리에서 문필활동을 한 사람들은 총 434명이다. 그들 중 333명(77%)은 성직자, 귀족, 의사, 변호사, 가정교사, 비서, 사서, 학생 등 특별한 신분을 지니거나 다양한 직업에 종사했다. 나머지 101명(23%)은 신원 미상이다. 특별한 신분이나 직업을 갖지 않은 채 문필활동을 하던 이들은 전업 작가들로 간주된다. 글 쓰는 직업의 전문화를 의미하는 이러한 현상은 18세기 파리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출판산업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문인들은 18세기 프랑스 경제의 변명과 출판시장의 확대를 배경으로 경제적 자립을 모색하며 자유로운 창작의 세계를 꿈꾸었다. 그러나 현실은 거리가 멀었다. 글을 쓰는 지적 노동만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사람은 극소수였다. 대부분의 문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직자나 변호사, 비서, 가정교사로 일하거나 후원자의 경제적 도움에 의존하며 살아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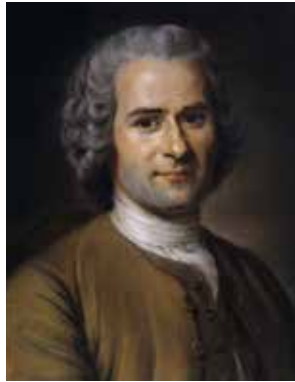
문인이 후원자를 만날 수 있는 건 살롱을 통해서였다. 살롱은 귀족이나 부유한 부르주아의 저택에 마련된, 도박과 논쟁, 독서와 식사 등 유희를 위한 공간이었다. 돌바크 남작(baron d'Holbach)처럼 예외적으로 남자가 주도한 살롱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택의 안주인인 여성들이 지배한 다양한 모임들이 유행했다. 살롱에서의 사회성은 문인으로 경력을 쌓는 데에 필수 조건이었다. 문인들은 살롱에서 후원자를 만나 연금을 얻거나 가정교사, 비서처럼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750년대에 문인들은 일주일에 2~3번 살롱에 출입했다. 문인들은 날카로운 지적 탐구와 유희를 즐기던 살롱에 활기를 불어 넣으며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역할을 했다. 당시 가장 인기가 높았던 랑베르 후작부인(marquise de Lambert, 1647~1733)이나 데팡 부인(mme Deffand, 1697~1780)의 살롱에서 볼테르(Francois-Marie Aroue Voltaire, 1694~1778), 디드로(Denis Diderot, 1713~1784), 튀르고(Anne Robert Jacques Turgot, 1727~1781), 콩도르세(Marquise de Condorcet, 1743~1794)와 같은 철학자들은 고위 관료와 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 징세청부업자와 결혼한 데피네 부인(mme d'Épinay, 1726~1783)과 왕립 거울 공장 운영자의 아내인 조프랭 부인(mme Geoffrin, 1699~1777)의 살롱은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는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 그리고 후한 인심으로 문인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이처럼 신분에 구애받지 않은 사회적 혼합의 공간인 살롱은 기존의 틀에 박힌 규범이나 제도에서 벗어난 지식의 성소였으며 문인들을 지탱해주는 사회경제적 보루였다.

1741년 현금 15루이를 들고 파리에 도착한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장 생계의 위협을 받던 그에게 카스텔 신부(père Castel, 1658~1743)는 살롱을 방문하라고 권하며 뒤팡 부인(mme Dupin, 1730~1766)을 소개해 주었다. 이후 루소는 뒤팡의 비



04



05



06

서로 일하며 그의 편지를 대신 써주거나 저술 작업을 도와주었다. 루소와 디드로와 같이 가난한 문인들은 귀족과 부르주아가 제공한 성에 머물면서 자유롭고 대담한 글쓰기에 몰두할 수 있었다. 부유한 부르주아 출신인 볼테르나 법복귀족(프랑스 절대 왕정의 관료 귀족)인 몽테스키외(Charles De Montesquieu, 1689~1755)도 여러 후원자들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시대의 총아 루소, 그러나 시대와 불화한 루소

역설적이지만, 문인들은 귀족이나 부유한 부르주아의 후원을 받는 상황에서 자유를 꿈꾸었고 사상의 독립이라는 이상을 키웠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BC 322)가 철학자를 신처럼 자족적인 존재로 간주했듯이, 사상의 독립과 자유로운 글쓰기에 대한 동경은 문인의 원초적인 갈망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고전문화의 세례를 받은 18세기 문인들이 지적 자율성을 추구한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후원관계가 문인의 독립과 사상적 자유를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루소는 이 문제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다.

말하자면 내게 주어진 연금을 잃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연금이 내게 부과했을 속박도 면했다. 진리, 자유, 용기와 하직한다면 그 후 어떻게 감히 독립과 무사무욕을 말할 수 있겠는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루소의 인생은 글을 쓰기 위해 끝없이 생계유지 방법을 찾아야 하는 불안정한 삶의 연속이었다. 그는 여러 후원자를 전전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후원이 얼마나 취약하며 모욕적인 것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았다. 1749년 디종 아카데미의 논문 현상 공모에서 <학문과 예술에 대하여>로 1등상을 차지함으로써 파리 문단에 화려하게 입성한 그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모든 경제적 부와 명성을 거부했다. 루소에게 의존은 악의 근원이며 자유란 곧 의존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상적 측면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고민해 온 그는, 현실에서도 공적·사적 후원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자율과 고립을 추구했다. 루소는 어린 시절부터의 구체적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기록한 <고백록>에서 후원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루이 15세가 제안한 연금을 거절한 후 자신의 견해를 단호히 밝힌 것이다.

자신이 속한 시대의 사회현실을 초월해서 실존적 평등의 문제를 제기한 루소는 시대와 불화한 문제적 인물이었다. 평생동안 선물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를 불편해했을 뿐 아니라 후원관계에 민감한 태도를 보였다. 악보 필사 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시도하기도 했다.

* 장자크 루소 <고백록>, 이용철 역(나남, 2012) 제2권 174쪽.

이러한 태도는 대부분의 동료 철학자들과 후원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나아가 그는 기득권에 기생하며 문화권력을 누리고 새로운 지배층으로 군림한 철학자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결국 루소는 문인 사회 전체의 적이 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루소가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어 온 디드로와 결별하게 된 것도, 돌바크 남작이 그를 사악한 인간이라고 비난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후원에 관한 루소와 철학자들의 대립은 사상 외적인 사소한 갈등으로 간주될 문제가 아니다. 타락하고 경박한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 프랑스 혁명 이전 절대군주체제의 구 제도)의 문화적 관행에 편승한 철학자들을 질타하며 루소가 제기한 문제는 18세기 문학회 전체의 문제였고 현실이었다. 그것은 절박한 생활의 문제였을 뿐 아니라, 삶의 자세에 관한 가치관과 직결된 문제였으며 사상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시대적 논쟁의 핵심이었다.

루소의 지적 자율성 추구하고 자립의 실험

당대의 정확한 현실은 18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자 최대의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루소마저도 결코 후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데 있다. 1754년 이후 원고료 수입으로 루소의 경제 사정은 다소 나아졌다. 그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원고료로 600 리브르, 1760년 <누벨 엘로이즈>로 2,160 리브르, 1761년 <에밀>로 6,000 리브르를 벌었다. 그 와중에도 후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는 번번이 거절했다. 루소에 의하면 후원은 무상의 선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후원에는 항상 이해관계가 개재됐다. 부유한 데다 문학적 야심이 강한 데피네 부인과의 관계는 후원에 관한 루소의 평소 생각을 재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데피네 부인은 친구들을 매우 좋아했고 대단히 열심히 대접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는 자기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그 보답으로 그들로부터 배려를 받을만했다. 그때까지 나는 이러한 의무를 의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충실히 이행했다. 그러나 결국 내가 오직 우정 때문에 그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루소는 왕의 친구인 대귀족 뤼상부르 공작이 제공한 집에서 집필 활동을 했다. 뤼상부르 공작은 그의 단칸방을 즐겨 찾았으나 자리를 알선하든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행동을 일절하지 않겠다는 루소와의 약속을 지켰다. 루소는 그의 조건 없는 호의를 “문학이 내게 가져다준, 그리고 내게 가장 감격적인 최고의 영예”로 여겼다. 대귀족들의 후원은 경제적 호의에 그치지 않았다. 1762년 6월 9일 파리 고등법원이 <에밀>과 <사회계약론>을 불태우라는 명령과 함께 체포령을 내렸을 때, 루소는 대귀족들의 도움을 받아 영국으로 피할 수 있었다. 그 후 8년간 루소가 이곳저곳의 은신처에 숨어 지내며 <고백록>을 완성한 것도 대귀족들의 정치적·경제적 도움 덕분이었다.

18세기 계몽사상의 중심지인 파리에서는 글을 통해 진리에 봉사하는 독창적인 천재와 독립적인 저자에 대한 동경과 찬사가 넘쳐흘렀다. 그러나 문학세계는 사실상 문인과 후원자 사이의 깊고 끈질긴 관계망에 지배됐다. 독립과 의존의 기묘한 공존은 18세기 당시 문학 세계의 독특한 현상이었다. 후원은 18세기 파리 문필공화국의 이러한 현상을 여실히 드러내 주는 일그러진 거울이자 계몽사상을 다른 시각에서 비추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프리즘이다. 

뤼상부르 공작은 상하관계를 거부하는
루소의 요구를 받아들여 평등과
상호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유형의
후원관계를 발전시켰다.

04 루소를 일약 사교계의 총아로 만든 논문 <학문과 예술에 대하여(Discours sur les sciences et les arts)> ©Barillot & fils

05 초상화의 대가 투르(Maurice Quentin de La Tour)가 그린 장 자크 루소 ©Photo RMN-Grand Palais - G. Blot

06 18세기 근대 도시로 발전해가는 파리의 다양한 전경을 자주 묘사한 장 밥티스트 라그네의 그림 <Vue de Paris du Pont Neuf(1763년)> ©Getty Museum

지난 3월, 2017년 9월부터
공석이었던 서울시립교향악단에
강은경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했다. 독특하면서도
독보적인 예술경영 이력으로
취임 소식이 들렸을 때부터
모두의 기대를 모았던 강은경
대표. 이제 곧 취임 반년
차를 맞이하는 그녀에게서
서울시향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ou
onic
orche

21세기 지속가능한 오케스트라를 꿈꾸며 변화를 일으키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강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5대 대표이사를 맡게 된 강은경 대표는 독보적인 경력을 지니고 있다. 예원학교에서 바이올린을 배웠던 그녀는 서울대 법대에 입학, 졸업 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경영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의 벤자민 N. 카도조 로스쿨에서 예술법 중심의 지식재산법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문화법정책으로 법학박사를 취득한 그녀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법률적 지식을 겸비한 예술경영 전문가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대원문화재단을 거치며 실무를 익힌 그녀는 2012년부터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예술경영을 가르쳐왔다. 그런 그녀가 서울시향의 대표직을 맡게 된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이다. 대표이사는 물론 음악감독까지 오랜 공석이었던 서울시향의 상황을 생각하면, 분명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있을 것이 분명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예상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은경 대표는 애정하는 서울시향을 위해 과감히 뛰어 들었다. 다음은 서울시향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진행된 강은경 대표와의 인터뷰다.



◆ **지난 3월 취임 이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음악적으로 비유하자면 오케스트라와 총보를 익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잖아요. 직원과 단원들 모두 한 번씩 돌아가며 일대일 점심 데이트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울시향의 모든 공연과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죠. 그러면서 서울시향과 더 가까워지고,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서울시향 전체를 파악하게 되었어요. 챙겨주는 리더가 오래 부재하다 보니, 문제점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인사는 적체되어 있었고 단원들도 공연 수가 많아지면서 피로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였죠. 시급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갔는데요. 섹션 별로 대표 이사가 채용할 수 있는 만큼 인원을 총원하고 로테이션이 될 수 있도록 했어요. 대형종합병원이나 척추전문병원과 MOU를 맺어 직원들과 단원들 모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단원들 모두 오랜 시간 연주를 하다 보니, 만성 직업병이 있거든요. 요가 프로그램 등도 상시로 운영하고 있고요.

◆ **취임 전에 밖에서 보아온 서울시향의 모습과 취임 후 안에서 직접 본 서울시향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저는 자신을 'SPO(Seoul Philharmonic orchestra) 키즈'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서울시향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서울시향 무대에 서는 걸 꿈꾸기도 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클래식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꾸준히 예술적 성과를 내는 뛰어난 예술단체라고 말이죠. 그런데 내부에 들어오니 서울시향은 훨씬 더 역동적인 조직이었어요. 연령, 성별, 국적이 다양한 100명 가량의 단원과 30명이 넘는 직원들. 숫자도 많고 개성 강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곳이었죠.

◆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향 대표라는 자리는 단원들과 직원들 관리만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서울시 출연 재단법인이다 보니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이사회와도 소통해야 하고요. 후원회, 언론, 서울시향을 아껴주는 시민의 의견까지 모두 신경 써야 하고 여러 곳에서 주시는 의견들을 조율해야 하죠. 그만큼 다양한 언어를 알아야 했어요. 예술가의 언어, 기관에 계신 관료들의 언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언어, 언론인의 언어까지. 다행히 제가 매체, 기업, 공공기관 모두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소통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공익재단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셨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교육 활동을 하신 바 있으며, 이제 예술단체의 장으로써 새로운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 대표님이 바라본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환경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역할이 조금씩 달랐는지 모르지만, 문화예술계에 몸담은 동안 변하지 않았던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뛰어난 예술가라는 꽃이 탄생하기까지 지속적으로 물을 줘야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한국도 차근차근 성장해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래도 성적 위주로 관심을 주다 보니 뿌리가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 **결국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것 같은데요. 취임 당시 공약 중 하나가 생애주기별 교육시스템 구축이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가 소수의 뛰어난 선수를 양성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예술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계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서울시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울 거고요. 현재 서울시향은 초·중등학교를 찾아가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는 '음악수업 2교시'라던가, 단원들이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교육하는 '오케스트라 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음악수업 2교시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처음 클래식을 들어본 거였는데 최고의 순간이었다며 감사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어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예술을 체험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 문화예술계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요즘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문화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예술가, 예술단체/기관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여가시간이 주어졌을 때 시민들에게 어떻게 만족스러운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문화예술기관과 단체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향을 예술적 요청과 공공적 요청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21세기 지속가능한 오케스트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오케스트라가 시작된 지난 세기에서 벗어나 현재의 모델로 변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일반 시민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겠죠. 이를 위해 서울시향은 현재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 중입니다.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퇴근길에 클래식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시내 곳곳에서 진행되는 '퇴근길 토크콘서트', 서울시향의 리허설도 구경하고 단원들과 소통도 할 수 있는 '리허설룸 콘서트', 공연 전 클래식 전문 해설가의 해설을 통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등. 이런 다양한 시도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문화예술이 시민들의 일상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얼마 전 발표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 활동 세제지원 확대' 문화접대비 제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향과 같은 기관단체나 기업 메세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말씀해주세요.**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향뿐 아니라 많은 예술단체도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도가 환경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죠. 결국은 그 안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한 것인데요. 국가와 유관기관들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셔야 하고, 기업과 예술단체들은 제도를 통해 만들어낸 좋은 사례를 계속 양산해야 합니다. 제도는 좋은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야 힘을 받는 것이고 그래야만 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으니까요.

-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메세나를 통한 문화예술 후원을 도모하고 있는 기업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국가나 개인 후원도 있지만, 기업도 우리의 문화예술 환경을 바꾸는 것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업과 예술단체가 동반자적 관계로 서로 초기 단계부터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사례도 늘었으면 하고요. 메세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형편이 되는 기업이 도움을 주는 단순한 역할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술에 어떻게 기업의 색을 입혀서 함께 발전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어요. 국가도 상생하는 모델을 차용해서 예술인 파견 사업을 진행하고 있듯이 메세나 모델은 계속 발전해가고 있지요. 서울시향 역시 조금 더 발전된 모델로 기획 단계부터 기업과 함께하면서, 기업이 서울시향이라는 예술단체를 통해 조금 더 색깔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굴과 함께 진행 중인 발달장애아와 그 가족들을 위한 연주회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주회였지만, 지금은 발달장애아들이 직접 연주에 참여함으로써 조금 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죠. 또 다른 예로 더 많은 사람이 클래식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은행과 함께 진행하는 '우리동네 음악회'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 단계부터 기업과 아이디어를 내면서 진행해나가고 있죠. 서울시향은 앞으로도 삶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던 분이 '갑자기 삶에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시도들을 하나갈 건데요. 그 시도에 많은 기업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도시 재생으로 도시 정체성을 살려야 한다

01



도시발전에 있어서 문화는 더 이상 전략적 도구가 아니라 문화를 바탕으로
도시발전을 이루는 근본적인 가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단순히 문화적인 재생을 넘어서 문화도시로의 재생을 기대해 본다.

01

포르투 역사지구(Historic Centre) ©E.S. PARK

02

마르세유 시내와 연결되는 지중해 미술관의 모습
©Euromediterranee, 2015

03

복합문화공간 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 ©La Friche la Belle de Mai

04

Residence Mediterranee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로코, 알제리 예술가들 ©La Friche la Belle de Mai

문화적 도시재생을 넘어 문화도시 활성화

산업화 이후 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공동화, 탈산업화 과정에서 낙후한 도시들의 도시재생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동안의 도시재생은 경제적·물리적 재생과 동일하게 인식됐으나 1980년대를 전후해 물리적인 재생이나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활성화, 삶의 질 개선 등의 포괄적인 의미로도 사용됐다. 1990년대 이후로는 사회적, 문화적인 도시재생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창조도시, 문화도시는 21세기 도시의 미래에서 매우 중요한 발전전략이다.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문화주도형 재생(Culture-led Regeneration)은 문화가 도시재생의 성장 동력이 되는 경우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쇠퇴한 도시의 이미지를 리브랜딩하거나 낙후된 도심의 재생을 위해 도시선도개발(Flagship Development)이나 대형 이벤트를 유치하여 도시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둘째는 문화를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문화참여형 재생(Culture and Regeneration)이다. 도시재생 단계에서 예술가들이 참여하거나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이 유형은 지속적인 도시운영관리와 지역발전에 도움을 준다. 셋째, 문화가 경제, 환경, 물리적, 사회적 재생과 통합되어 계획되는 문화통합형 재생(Cultural Regeneration)이다. 문화도시, 창조환경,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도시통합형 방식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도시발전 모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재생은 2013년 4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최근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낙후한 도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다음의 3가지 사례는 지역문화 정체성 회복, 역사문화유산의 활용, 폐산업단지 재생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한 문화도시의 사례이다. 한국의 도시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아 보인다.

마르세유: 다인종 지역예술인들의 참여와 ‘지중해문화’로 되살아난 지역정체성

마르세유는 프랑스 남쪽의 지중해에 자리한 프랑스 최대의 무역항이자 뤼미에르 형제, 알베르 카뮈, 폴 세잔 등이 태어나거나 활동하던 도시이다. 17세기에 동방무역의 거점이 되고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프랑스 최대의 공업·무역 항구도시로 발전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며 레지스탕스와 노동자들의 거주지였던 파니에 지역이 처참하게 파괴됐고 1920년대에는 코르시카섬이 이탈리아 마피아를 다룬 영화의 배경이 되면서 마르세유는 범죄와 마약으로 물든 부정적인 느와르 도시 이미지를 얻게 됐다. 실제로 아르메니아, 이탈리아, 스페인, 동유럽, 북아프리카 알제리 등에서 학살과 핍박, 전쟁을 피해 몰려든 다양한 인종과 이민자들이 혼합된 지역인 마르세유는 가장 프랑스답지 않은 도시로 인식됐다.

1960년대 이후 알제리 독립과 제2차 중동전쟁의 여파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적으로도 낙후되어 갈등이 지속되자 1995년에 마르세유의 도시재생 사업인 ‘유로메디테라네(Euromediterranee)’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벨드메 지역의 폐쇄된 대규모 담배 제조공장에 연극집단이 입주하고 1992년에 마르세유 시가 부지를 매입하여 일부 시설을 창작공간으로 임대하면서 1995년에는 ‘도시 프로젝트를 위한 문화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담배 공장은 복합문화공간인 ‘라 프리쉬 라 벨 드 메(La Friche la Belle de Mai)’로 재탄생했다. 10만 평의



02



03



04



05

부지는 예술창작 공간, 멀티미디어기업 입주,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3개 섹터로 구분됐고 사회적 기업(SCIC)이 2007년 설립되면서 사무실, 방송국과 100여 명이 동시에 이용가능한 레스토랑 레그랑따블 등이 운영되고 있다. 마르세유 북부 공장지대에는 국립거리예술 제작센터가 있는 거리예술지구(La Cité des Arts de la Rue), 귀촌예술단체가 주민 창작체험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라 가르 프랑쉬(La Gare franche) 등이 있다. 마르세유는 위와 같은 시민과 예술가들의 지역재생 노력에 힘입어 2013년에는 카뮈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유럽 문화수도의 사업을 개최했다.



06

마르세유가 선정한 지역정체성에 관한 주제는 프랑스도 유럽도 아닌 '지중해 문명'이었다. 제국의 무역항, 해양무역 근거지, 다인종, 다문화 등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에 의해 형성된 지중해 문명의 정체성 회복을 통해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르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젊고 활기찬 도시 리브랜딩

항구라는 뜻을 지닌 포르투(Porto)는 대서양에 인접한 도우로(Douro) 강 하구에 위치한 포르투갈 제2의 도시이다. 대항해시대를 지배했던 해양왕국 포르투갈 건국의 기원이 된 대표적인 무역항이며 1174년까지 포르투갈 북부의 수도였다. 14세기에는 아프리카로 항해하는 배를 건조했고 18세기에는 영국식 산업의 발달로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무역의 집중지이며 19세기까지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누리는 세계도시로써 황금기를 겪었다.

히베리아(Riveria) 강변을 중심으로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등의 중세시대 건축물이 그대로 보존된 역사센터(Historic Centre) 지구는 1996년 '오포르투 역사지구(Historic Centre of Oporto)'라는 명칭으로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다. 그러나 이베리아 반도의 북서쪽 포르투 대도시권이 개발되면서 1950년대 이후 역사센터를 포함한 구도심 '바이샤(Baixa)' 지구는 경제적 침체와 쇠락을 거듭한 결과 2000년에 재생지역으로 분류됐다.

2001년에 포르투가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ECoC)로 선정되면서 1년 동안 예술, 문화 행사 및 도시 재생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포르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논했다. 이 당시 거장 건축가 램 콜하스에 의해 건설된 음악의 전당(Casa da Música)은 역사적 지구와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근린생활권 사이에 위치해 랜드마크가 됐다. 2004년에는 지방 정부가 본격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소유기업을 설립하고 도시아이덴티티를 위해 도우로강, 와인, 무역항, 루이1세 다리, 트램 등 22개 아줄레주(Azulejo)

문화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공간 및 문화골목이 늘어나고 히베리아 강변의 노천카페, 클럽 등 활기찬 분위기가 젊은 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로 베를린에 이어 유럽의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타일 패턴을 활용한 'What is Your Porto' 도시 리브랜딩 사업이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현재 포르투 대도시지역은 많은 젊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강한 기업이 정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모이고 있다. 포르투에서 문화는 사회를 떠받드는 기둥이며 사회적 응집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공간 및 문화골목이 늘어나고 히베리아 강변의 노천카페, 클럽 등 활기찬 분위기가 젊은 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시사전문지 US 뉴스에 의해 로마, 시드니에 이어 2017년 세계 최고 여행지로 선정되는 등 베를린에 이어 유럽의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의 버스킹 장면에서 히베리아 광장 노천카페가 배경으로 나와 큰 관심을 끌었다.

07



08



09

05

Casa da Musica에는 3개의 오케스트라와 문화 기관이 상주해 있고, 클래식과 어린이 콘서트, 클럽 파티 등 광범위한 장르를 수용한다. ©Philippe Ruault

06

Casa da Musica는 역사적 지구와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근린생활권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렘 콜하스가 건축했다. ©archdaily

07, 08


조선소를 활용한 샤우스피엘하우스 극장 주변의 가든과 내부 모습 ©D.E.LIM

09

취리히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난 테크노파크 프라이타워 ©West Zurich

취리히 웨스트: 낙후된 공장지대에서 창조지역으로 변신

스위스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유럽의 수준 높고 다양한 예술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많은 예술가가 스위스에서 활동했고 또 알프스 등의 자연을 사랑한 예술가들이 머물렀던 덕분이다. 취리히 역시 미술관, 공연장, 건축들이 즐비한데 그중에서도 취리히 웨스트에 핫플레이스가 조성되고 있다. 취리히 웨스트 지역은 18세기 이후에 조선소, 제철소 등의 공장지대로 급속하게 발전하다가 20세기 초에 이르러 쇠퇴했다. 특히 건설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4구역 아우서질(Aussersihl) 지역은 범죄, 마약, 매춘, 노숙자들로 황폐해졌고 2001년에 공공 질서와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랑슈트라세 플러스(Langstrasse PLUS)’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취리히 웨스트는 ‘웨스트 엔드(West End)’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레스토랑, 바, 클럽, 멀티 플렉스 영화관 250개의 기업과 1,800개의 일자리를 보유한 지식과 기술은 지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었다.

취리히 웨스트 협동 개발 계획(Cooperative Development Planning Zurich-West)에는 예술, 디자인 및 음악 등의 창조지역 계획이 수립됐다. 쿤스트 할레 미술관, 미그로스 미술관, 취리히 예술 대학을 비롯해 재즈 및 팝, 일렉트로닉, 인디밴드를 보유하고 있는 클럽 등이 있다. 샤우스피엘하우스(Schauspielhaus) 극장은 지난 2000년에 사용하지 않는 조선소를 개조해서 극장과 레스토랑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거, 레스토랑, 작업공간 등으로 이루어진 구역은 파티와 이벤트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빈티지 가든인 프라우 게롤드 정원(Frau Gerolds Garten)도 매우 흥미로운 공간이다. 취리히 웨스트의 테크노파크를 상징하는 컨테이너 빌딩은 리사이클 제품을 생산하는 프라이타크(Freitag) 본사이자 매장이다. 이외에도 폐쇄된 철로 교각은 2009년 ‘임비아дук트(Im Viadukt)’라는 쇼핑몰로 변모하는 등 버려진 공장지대가 청년, 예술가 등의 창조인력이 모여드는 창조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메세나 포커스
- 메세나 갤러리 -

Weather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

디뮤지엄



전시 <Weather: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는 무심코 지나친 일상의 날씨에 주목한다. 같은 날씨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전시에 참여한 국내의 작가 26인은 각기 다른 시각과 감성으로 날씨를 그려냈다. 일상적 체험으로서의 날씨는 전시 안에서 사진, 사운드, 영상, 설치 작품 등으로 새롭게 감각된다. 전시는 총 세 개의 챕터 '날씨가 말을 걸다', '날씨와 대화하다', '날씨로 기억하다' 순으로 전개된다. 여기에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그리고 여섯 가지 이야기를 더해 마치 한편의 수필집처럼 구성했다.

01

Sellwood Docks(Oregon Summer), 2016
©Olivia Bee

02

Lake Garda, Italy, 1999 ©Martin Parr Courtesy
of the Artist and Rocket Gallery

03

Yusurika 005, 2014 ©Yoshinori Mizutani
Courtesy of the Artist and IMA gallery

Chapter I. 날씨가 말을 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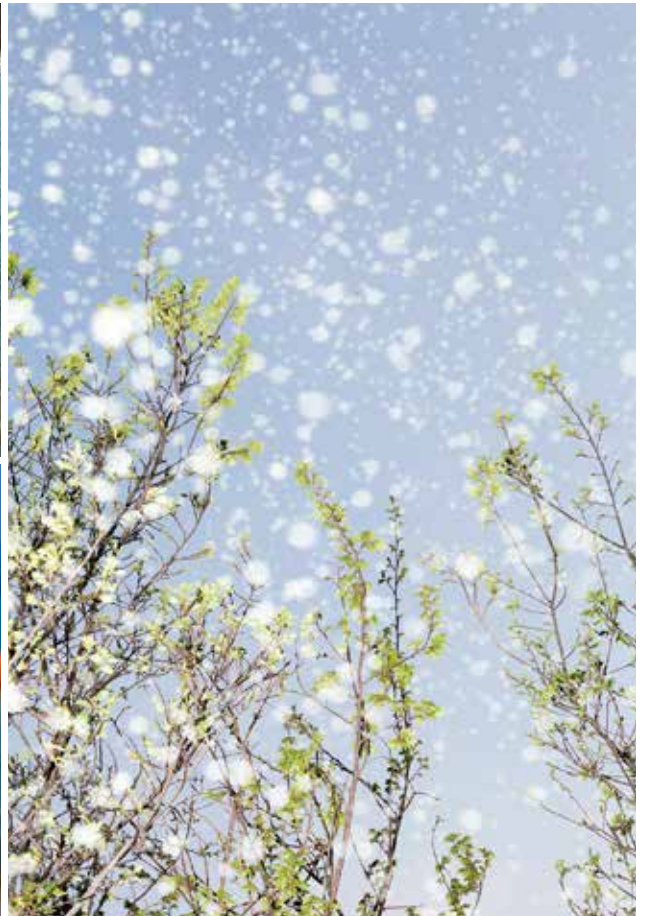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작품은 크리스 프레이저의 설치 <Revolving Doors>다. 관람객이 회전문을 통과할 때마다 문틈 새로 들어오는 빛은 공간의 분위기와 구조를 극적으로 변화시킨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날씨에 관한 일반적인 관념들을 재해석한다. 20대의 젊은 사진작가 올리비아 비는 자신과 친구들의 평범한 일상을 포착한다. 색다를 것 없는 순간이지만 친구들의 해사한 웃음 사이로 은근한 청춘의 낭만이 묻어난다. 각 나라의 해변을 기록하는 마크 보스워. 그는 강렬한 태양 아래 해수욕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선명하고도 과장된 색감으로 담아낸다. 눈과 비 섹션으로 가면 요시노리 미즈타니의 <Yusurika> 시리즈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언뜻 눈발이 휘날리는 도시의 풍경 같지만, 사실 눈발의 정체는 '유슈리카'라는 날벌레들이다. 작가는 날벌레를 눈처럼 표현함으로써 여름에 눈이 내리는 도시의 비현실적인 풍경을 만들어냈다. 마지막 '어둠' 섹션에서는 어슴푸레한 빛과 순간을 포착하고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마리나 리히터의 작업이 전시되어 있다.

01



03



02



Chapter II. 날씨와 대화하다

04

Trees, The Tribune, 2016 ©Maria Svarbova

05

Nimbus Roebourne, Pilbara, WA, 2017
©Berndnaut Smilde

06

My Weather Diary, 2001-2018 ©Jari Silomaki

07

Cloud Way, Street Errands, 2017 ©Kanghee Kim

두 번째 챕터에서는 시각, 촉각, 청각 기반의 입체적 경험을 제공하며 날씨에 관한 감각을 확장시킨다. 먼저 '파랑' 섹션에서는 인공적인 염료가 아닌 자연현상에서 발견되는 파란색의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한다. 매일 다른 색의 하늘을 타일처럼 이어붙인 이은선의 <Collective Blue>를 시작으로 관람객들은 다양한 풍경 속의 파랑을 발견하게 된다. 마리아 스바르보바의 수영장 사진에는 공통적으로 푸른빛이 드리워져 있다. 수영장 외관의 적박하면서도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은 경쾌한 푸른색과 대비를 이루며 독특한 시각적 즐거움을 준다. 뒤이어 '안개' 섹션에서는 물리적으로 구현된 안개를 경험해 볼 수 있다. 또한 베른나우트 스밀테의 <Nimbus> 시리즈가 시적 오브제로서의 안개를 다룬다. 이것은 박물관이나 공장, 고성과 같은 내부의 장소에 구름을 '생성'한 후 기록한 프로젝트다. 챕터의 마지막은 빗소리가 장식한다. 관람객들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으며 오로지 빗소리에 집중하게 된다.

04



05





06



07

디뮤지엄 - 전시포스터
 <Weather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



Chapter III. 날씨를 기억하다

작가의 개성에 따라 다르게 기록된 날씨, 그리고 기억 속 날씨가 어떤 감정과 형태로 자리 잡는지 관찰한다. 사물에 빛과 바람을 투영시켜 풍경을 기록하는 울리히 포글의 설치를 지나면 벽면을 가득 메운 야리 실로마키의 사진이 있다. 그는 매일의 날씨를 사진으로 남기고, 같은 날 일어난 세계적 이슈나 개인적인 사건들을 사진 위에 손 글씨로 기록했다. 김강희 작가는 현실에서 맞닥뜨린 물리적 한계에서 탈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현실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Street Errands> 시리즈는 뉴욕의 거리 및 여러 지역을 찍은 사진에 포토샵을 이용해 회화적 터치를 더한 것으로, 익숙하지만 어딘가 낯선 풍경들이 인상적이다.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부부 사진작가 알렉스 웹과 레베카 노리스 웹의 작품들을 비교 감상해보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아날로그 슬라이드 영상으로 구성된 마크 보스워의 <Abandon Reverie>를 만나볼 수 있다. 적당히 어두운 조도와 음악으로 조성된 이 명상적인 공간에서 관람객들은 작가와 함께 지나간 햇살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공유하게 된다. 🎬

창공을 날아오르고 싶은 꿈 인간의 염원을 실었던 '연'

鳶

01



02



최초의 연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

연은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에서 처음 시작됐는지 분명하지 않다. 대개 서양에서는 기원전 400년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Platon, 기원전 428~348)의 친구인 알타스(Atlas) 또는 아키타스(Archytas, 기원전 428~347)가 연을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인정한다. 이 시대를 계산해보면 서양 연의 역사는 약 2,400년 전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동양에서는 약 2,200년 전 중국 한나라의 장군 한신(韓信, 기원전 231~196)이 연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송나라 때 저술된 <사물기원(事物記原)>에 의하면,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후 한신이 종이연을 띄워 황궁이었던 미양궁(未央宮)까지의 거리를 재는 데에 활용했다고 한다. 또 다른 야사로는 한나라와 초나라의 중국 통일전쟁 때 한신이 소가죽으로 만든 연을 띄우고 피리를 잘 부는 사람을 태워 초나라 음악을 연주하게 했다는데, 어떤 이야기가 사실이든 한신이 만들었다는 것은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지 동이전>에 고대 각국의 명절 풍습을 기록한 부분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데, 동예의 '무천',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등 제천 의식에서 갖가지 노래와 춤, 기예와 오락이 벌어졌다는 기록이 보인다. 바로 이때 하늘에 대한 염원을 담은 연을 띄워 노는 행사가 있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다.

첫 공식기록은 <삼국사기> 41권 <열전>의 김유신조에서 나온다. 647년 진덕여왕이 즉위한 직후 비담과 염종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토벌에 나선 김유신(595~673)이 부하들을 시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연에 매달고 하늘로 올려 보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불덩이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 같다며 두려워했고, 이에 김유신은 군사를 몰아 반란 무리를 패주시켰다고 한다.

일본의 기록은 이보다 200여 년 후인 930년대에 쓰인 책 <왜명류취초(倭名類聚抄)>에 지노치(올빼미 모양의 종이연)를 만들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후 1168년 <이여파자류초(伊呂波字類抄)>, 1241년 <유취명의초(類聚名義抄)>에서도 지노치란 이름이 보인다.

하늘을 나는 꿈을 대신한 연, 동서양을 오가다

연의 여러 용도 중에서 오늘날까지 전하는 것은 연놀이가 아닐까 싶다. 조선시대 학자인 유득공(1749~1807)이 서울 지역의 민속을 소개한 책 <경도잡지(京都雜志)>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아이들이 액(厄)자를 연에 써 해질 무렵 줄을 끊어 날려 보낸다. (중략) 연 날리는 것이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종횡으로 가고 오며 남의 연과 마찰시켜 연줄을 끊어서 쾌락을 맛보기도 한다. 연줄은 겹실이며 여기에 아교를 매끈하게 칠해 마치 흰 말의 꼬리와 같다. 혹은 황색 치자 물을 매겨서 이것을 바람에 띄우면 째깍하고 울리는 줄이라야 남의 연줄을 잘 자른다. 심한 자는 자석의 가루 또는 구리 등 쇠가루를 풀칠해 바른다. 그러나 연줄을 끊기 위해서는 연줄을 잘 교차시키는 능력에 따라 승부가 난다. 매해 정월 보름 전 하루나 이틀은 수표교의 연변에서 연싸움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을 쌓는 듯 모인다. 연줄이 끊기면 그 연을 잡으려고 담을 넘고 집까지 뛰어 넘기도 하므로 못사람은 놀라서 두려워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인 방패연은 가로:세로의 비율이 2:3 정도의 직사각형으로 만든다. 가운데에는 둥근 구멍을 뚫어 바람이 빠질 수 있게 하고, 줄을 3~4곳에 매어 두어 연을 조종하기 쉽다. 상단 부분은 약간 구부린 유선형으로 만들어 바람의 힘을 하단으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인류사와도 궤를 같이한다. 제사 때는
주술적인 의미를 담아 날려 보냈고,
전쟁터에서는 연락 용도로, 심지어 건물을
지을 때는 벽돌을 실어 올리기도 했다.

03
한국 전통 소재인 모시로 만든 창작연, 방패연과
가오리연 ©주경자

04
입체적인 형태, 다양한 색상을 조합해 만든
오늘날의 창작 연 ©PIXNIO

로 흐르게끔 한다. 또 바닷가, 강가가 많은 마을의 경우 구멍을 크게 뚫고, 평지나 산간 마을은 구멍을 작게 한 것을 보면 지역적으로 풍량 차이와 특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연줄을 감는 열레는 물레의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 가운데에 고정된 막대가 있고 외부의 틀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 연을 빨리 풀고 감을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원리는 오랜 기간에 걸쳐 학습된 결과물로, 다양한 고민과 지혜가 쌓인 증거다.

서양은 15세기 무렵 해상 교통이 활발해지면서 동양의 연을 가져갔고, 이를 통해 비행과 관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데에 일조했다.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0790)은 1752년 연을 이용해 천둥 번개가 전기현상임을 실험해 최초의 피뢰침을 발명했다. 1783년에는 중국의 한신이 만든 소기죽 연을 재연하듯 프랑스에서 열기구가 발명됐고, 1891년에는 독일의 오토 릴리엔탈(Otto Lilienthal, 1848~1896)이 만든 글라이더가 처음으로 하늘을 날았다.

다양한 형태,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지는 연

오늘날 연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으로 만들어진다. 일본은 주요 행사 시 '히가시오미 오다코'란 대형 연을 만들어 띄우는데, 연에 특별한 메시지를 표현하는 글자를 그려 넣거나 퍼즐 모양을 표현하기도 한다. 보통 윗 부분은 검은색과 흰색으로 동물을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한자를 커다랗게 써 넣는다. 크기는 가로세로가 12~15m, 무게만도 수십~수백 kg에 이른다. 이러한 대형 연은 봄철에 크고 작은 행사에서 쓰인다.

중국의 경우 높이 띄우는 데에 중점을 두고, 연의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어 모양 꾸미기에 관심을 둔다. 때문에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지만, 디자인은 사실적인 묘사와 세밀한 디테일이 특징이다. 대부분 장식적이고 복잡한 구성을 띄우며, 특히 수십 개의 연을 연줄로 이어 기이한 인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해변이 많은 탓에 재질이 튼튼하고 질기다는 특징이 있다. 디자인은 많은 색상을 활용해 화려한 편이고, 비대칭을 이루는 형태도 있다. 유럽의 경우 형태와 구조가 굉장히 자유로운 것이 많다. 어느 정도는 구조의 동일성을 가진 동아시아와 달리, 유럽은 사각·육각의 면 형태가 아니라 원이나 육면체처럼 도형을 만들어 날리기도 한다.

놀이의 가치, 미적인 가치에서 활용의 가치를 더하고 있는 연, 우리의 생활에

맞는 다양한 연을 만들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연은 근래에 산업적인 용도로도 활용된다.

가령 우주선을 회수하고, 조난자를 구조하거나 광고·홍보용으로도 사용된다.

카메라를 달면 오랜 시간

공중촬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화산활동이 잦은 지역에서

화산 감시용으로 이용되며, 생태계 조사,

지형 조사 등에도 널리 쓰인다.



1 관객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즐거운 하모니

2018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2018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오페라&콘서트'

who

20여 개 병원의 환자와 가족들, 트리니티필하모닉오케스트라

what

친근한 오페라, 뮤지컬, 영화 OST 등의 공연과 해설을 곁들인 위로와 치유의 음악회


“공연 내내 환자가 아닌 관객으로 음악에 몰입할 수 있어서 큰 위로가 됐어요”

9월 5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로비에 때아닌 음악 단비가 쏟아졌다. 종근당과 한국메세나협회가 함께 전국의 병원을 찾아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화나눔 프로그램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의 일환인 '오페라&콘서트'의 공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는 어린이 병동을 찾아가는 키즈 오페라와 병원 로비를 통해 오페라 아리아를 만나는 '오페라&콘서트' 두 가지 콘셉트의 공연을 전국 20여 개 병원에서 진행하는 문화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열린 '오페라&콘서트'는 오페라,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였다. 병원 로비에서 오페라와 뮤지컬, 영화 OST 등 친숙한 음악을 해설과 함께 들려주는 음악회로, 투병에 지친 환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전했다.

먼저 팝페라양상블 DS가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과 'Grande Amore'를 불렀다. 이어서 소프라노 장지애가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꿈속에 살고 싶어라'를, 바리톤 오주호가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를 불러 큰 호응을 얻었다. 장애인과 우주호는 오페라 <유쾌한 미망인> 중 'Lippen Schweigen'로 다시 한번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뒤이어 다시 무대에 오른 팝페라양상블 DS는 영화 <어바웃 타임>에 삽입되었던 'Il Mondo', 오페라 <투란도트>의 'Nessun Dorma', 영화 <시스터 액트>의 'Oh Happy Day' 등으로 흥을 돋웠다. 이날 '오페라&콘서트'의 하이라이트는 가수 양파의 무대였다. '애송이의 사랑', '메리미' 등 히트곡을 선보여 관객들의 박수를 한몸에 받은 양파는 '아름다운 강산', '하늘을 달리다'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이며 대미를 장식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오페라 희망이야기는 전국 여러 지역의 환자들을 찾아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의 문화소외 계층을 찾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은 2011년부터 찾아가는 오페라 공연을 통한 문화예술 나눔 사업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으며, 꾸준히 활동영역을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01, 02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로비에 모인 청중들은 출연자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사회적 미션을 해결하는

기업가를 찾는다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더 열심히 움직이고 더 고민하는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메세나협회와 현대차그룹,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 7월 3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표, 이대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등 사회적기업 관계자와 H-온드림 7기 선정팀 등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7기 시상식 및 사업발표회를 개최했다.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은 현대차그룹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초창기 사회적 기업에게 팀당 최대 1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1년간 창업교육 및 1:1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의 모집·심사를 거쳐 선발된 25개 7기 사회적기업 창업팀의 시상식과 사업발표회가 진행됐다. 사업발표를 한 문화/예술 분야 ‘라이트루트’는 실업난의 아픔을 갖고 있는 청년 디자이너들의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어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청년 디자이너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돕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외에도 H-온드림 7기에 선정된 모든 사회적기업들이 소셜 미션과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5월 현대차 정몽구 재단,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 협약식을 개최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50개의 사회적기업 창업과 1250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H-온드림 데모데이’를 개최해 사회적기업의 외부 투자 유치를 도왔으며, 임직원 온라인 쇼핑몰에 사회적기업 전용관을 열어 매출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 취업 및 창업을 적극 돕고 있으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50개의 사회적기업 창업과 87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who

H-온드림 7기 선정팀, 현대차그룹 및 현대차 정몽구 재단,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표, 이대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등

what

성장 잠재력이 큰 초창기 사회적기업에게 자금 지원과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



01

02



01, 02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초창기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03, 04

사회적기업 관계자와 H-온드림 7기 선정팀 등 150여 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이번 2018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에 선정된 명랑캠페인의 오호진 대표는 우연한 계기로 접하게 된 미혼모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자비를 들여 지속적으로 공연을 만들고 세상에 알려졌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 이런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으며 문화콘텐츠를 통해 세상에 알리는 데 열정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며 사회의 순기능을 하는 명랑한 캠페인에 앞장서는 오호진 대표의 얘기를 들어본다.

Q 명랑컴퍼니는 어떤 회사인가?

A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소외계층 자립을 위한 캠페인 진행을 하고자 한다. 총 3명이 일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캘리그라피, 영화제 등 관련 파트너들과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문화예술 기획, 캠페인 개발·진행 등 2가지 트랙으로 움직이는데, 소외계층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당사자 콘텐츠'를 만들어 팔고 있고, 소외계층과 관련한 캠페인을 기획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종 행사 기획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다시 당사자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Q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은가?

A 일을 하면서 '우리끼리 한다'는 느낌이 많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일을 알리고 함께 하고 싶었다. 지원금은 광고비나 콘텐츠 투자 등에 사용하고 싶고, 미혼모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담아 만든 공연을 상업극으로 발전시켜보고 싶다.

Q 이 오디션은 명랑캠페인에게 어떤 존재인가?

A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을 통해 지원을 받아 크게 성장한 사회적기업과 소셜 벤처가 많다. 다른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가장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멘토링이 아주 남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사에 대한 고민 없이 와서 시간만 때우다 가는 멘토링을 많이 겪은 바, 체계적인 멘토링에 대한 기대가 크다. **MM**





01

01
경서중학교 학생이 자율 주행
자동차를 조립해보고 있다.

02
학생들이 서로 협업하여 탄생시킨
미래도시를 살펴보고 있다.

3 내 손으로 만드는

미래도시

LG 영메이커 아카데미

LG 영메이커 아카데미

who
경서중학교 1학년 학생
80여 명


what
청소년 대상으로 창의적인
메이커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나만의 자동차를 갖게 돼 뿌듯해요!”

지난 7월 중순부터 약 2주 동안 서울 경서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LG 영메이커 아카데미’가 진행됐다. 80여 명의 학생들은 컴퓨터실에 모여 자율주행 자동차를 직접 코딩해보고, 미술실에서는 우리가 살게 될 미래의 도시를 종이로 만들어보기도 했다. 학생들은 3D 프린터 펜이 지나가면 벽이 그려지고 지붕이 생기는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LG 영메이커 아카데미는 학생들이 창의적인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창의적인 영메이커로 육성하고자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해마다 한 학교씩 선정해 학생들에게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 교육을 제공하고 메이커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번 아카데미는 ‘미래도시’라는 큰 주제로 ‘3D펜을 활용한 미래 건축물 제작’, ‘페이퍼 아트를 통한 미래도시 계획 수립’, ‘수직농법과 아쿠아포닉스로 배우는 미래 도시 농업’, ‘조립부터 코딩까지 경험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 등 4개의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학생들은 간단한 공통이론 교육 후 저마다 흥미와 재능을 고려해 주제를 선택하고, 미래도시의 요소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갔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조립하고 코딩하는 반의 유일한 여학생이었던 김채정 학생은 “아카데미를 통해 평소 경험할 수 없던 과목을 배우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 큰 성취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들도 2주간 매일 같이 진행된 수업기간이 짧게 느껴졌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9월 15~16일, 학생들은 과천과학관에서 진행될 ‘2018 LG 영메이커 페스티벌’에 참여해 직접 만든 도시와 자동차를 전시하고, 메이커 관련 워크숍을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페스티벌을 찾은 가족과 또 다른 영메이커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진정한 메이커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02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인텐시브 아트캠프

who

드림그림 장학생,
진기중·명윤아·이지희 작가,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슈가미트, 한성자동차
엠버서더 임직원

what

드림그림 장학생과 멘토,
작가, 엠버서더와 함께하는
아트캠프



01

“미술작가의 꿈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로 7회째 맞은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인텐시브 아트캠프’는 해마다 여름 방학 시즌에 맞춰 드림그림 장학생들의 집중적인 작업 활동에 함께할 여러 미술 장르의 작가를 초빙해 협동심, 미적 감각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아트캠프에서는 ‘CLIP THE STORY’라는 주제로 여러 시대의 문화를 융합해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예술적 시야를 확장할 수 있었다. 설치미술가 진기중 작가와 장학생들은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주제를 도출해 세트장을 제작했다. 명윤아 작가는 자신의 추억이 담긴 사물을 떠올리고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를 모티브로 색점토를 이용해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슈가미트는 팝아트 방식의 대중적인 만화를 작품 오브제로 활용해 공동협업의 골라주 작업을 진행했다.

7월 26일에는 학생들이 예술적,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고 역할을 맡은 한성자동차 임직원들이 작품 활동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드림그림 장학생과 멘토, 한성자동차 엠버서더 임직원은 페이퍼아트 이지희 작가의 프로그램에 참여, 메르세데스-벤츠의 역사적이면서도 독특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G-Class 차량의 미니어처 모델을 제작했다. 아트캠프에 참여한 강문정 학생은 “작품 활동을 하면서 엠버서더, 멘토, 작가들과 직접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그림으로 마음과 생각을 나누며 가치관과 영감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울프 아우스프룽 한성자동차 대표는 “학생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며 미술에 대한 열정과 실력을 볼 수 있어 뿌듯했다”고 전했다. 📌



02

01
올해 인텐시브 아트캠프에는 장학생들과 여러 작가와 엠버서더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02
작가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완성해가고 있는 장학생의 모습

4 시대를 잇고 문화를 익히는 예술작업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연주할 때 활은 살짝 움켜쥐듯 잡아야 예쁜 소리가 나오”

한화그룹과 한국메세나협회가 함께 기획한 클래식 악기 교육 프로그램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2018 음악캠프’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진행됐다.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든 ‘한화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청주와 천안지역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으로, 클래식 악기를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연간 160시간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음악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들 중 가장 단원들이 기다리는 행사는 단연 음악캠프다. 겨울에 진행될 재능나눔 공연과 정기연주회에서 선보일 곡들을 중심으로 파트별 연습, 합주·양상블 연습이 모두 진행되는 빠빠한 일정이지만, 자연과 가까운 곳을 찾아 마음을 힐링하고 수준 높고 전문적인 강사들을 만나 실력 향상을 꾀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올해도 단원들은 여러 친구들을 만나 대화하며, 하모니를 만들어갈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특히 올해 음악캠프에서는 5년 연속 참여한 선배 단원 박은서 양(바이올린)과 백성훈 군(첼로)이 전문 강사들을 돕는 ‘피어 티칭(Peer Teaching: 동료학습)’ 강사로 나서서 자신이 배워온 것을 나눔으로써 또 한번 성장의 발판을 밟을 수 있었다.

앞으로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각 지역의 복지시설을 위한 재능나눔 공연을 펼치고, 지역별 정기연주회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향유계층 저변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오케스트라·양상블 연습을 통해 화합하는 방법을 배움과 동시에 그 배움을 다시 나누는 학생들,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를 모은다. **한화**

배우고 가르치고 다시 성장하는 음악캠프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2018 음악캠프



01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2018 음악캠프**

who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음악 전문강사

what
청소년 단원들이 오케스트라
합주와 양상블 실력을 갈고
닦는 여름음악캠프



02

01, 02
음악캠프를 통해 연주 실력을
한층 높인 단원들의 모습

과자로 얼굴을 만들고, 아쟁도 배워보는

특별한 여름방학

크라운해태 K-arts 국악캠프

크라운해태 K-arts 국악캠프

who
5개 지역 8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35명, 락음국악단, 동락연희단, 배꽃 떨어지니 봄이로다, 아트브릿지


what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국악 체험 프로그램

“해설과 함께 들으니 어려운 국악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크라운-해태제과와 한국메세나협회는 지난 8월 8~10일, 경기도 양주 크라운-해태 연수원에서 어린이 여름방학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크라운해태 K-arts 국악캠프’를 개최했다.

첫 프로그램은 과자로 미술작품을 만들어보는 ‘뚝뚝뚝, 과자로 만드는 얼굴’이었는데, 어린이들은 웨하스, 프레즐, 초콜릿 등 과자를 활용해 얼굴을 만들어보고 서로의 것을 비교해보면서 함박웃음을 터트리는 등 단란한 시간을 보냈다. 뒤이어 진행된 국악 체험에서는 락음국악단의 ‘해설이 있는 국악교실’을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국악 악기를 만나보고 민요를 배워볼 수 있었다. 어린이들은 락음국악단이 연주하는 동요, 만화 주제곡에 맞춰 박수를 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한껏 흥겨워했다.

둘째 날에는 동락연희단과 함께 버나 돌리기, 길놀이 같은 전통놀이를 체험해보고,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배꽃 떨어지니 봄이로다’가 준비한 국악 뮤지컬 <춘향난봉가>, 교육연극 전문단체인 아트브릿지의 역사연극 등 우리의 전통문화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흥미를 돋웠다.

프로그램을 지켜본 대성지역아동센터의 윤선화 선생님은 “우리 센터 어린이의 90%가 다문화 가정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에게 국악이 자신의 뿌리임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크라운해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국악에 친숙해지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크라운해태 K-arts 국악캠프는 2014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소외지역 어린이들을 초청해 국악 체험, 국악 뮤지컬 관람, 전통연희 체험 등의 콘텐츠를 제공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다. 



01



02

01
어린이들이 각종 과자를 이용해 만든 얼굴 작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03
국악캠프 참가 학생들이 국악악기 체험에 큰 흥미를 보였다.

문화 CSR
- 기업·예술 파트너십 -

KT&G장학재단의 '메세나 음악분야 장학사업 장학증서 수여식 현장




음악 영재가 예술가가 되는 그날까지, 지원은 계속된다

KT&G장학재단 '메세나 음악분야' 장학사업

KT&G장학재단이 차세대 예술가를 지원하는 '메세나 음악분야' 장학사업의 장학증서 수여식이 6월 4일 KT&G 상상마당 홍대에서 진행됐다. KT&G장학재단의 예체능 특기자 장학사업의 일환인 이 사업은 만 13세~18세의 청소년 중 선발해 세계적인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의 추천을 받은 클래식 음악 영재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첫 해에 5명, 2년차인 2017년에 14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올해는 지원 인원을 대폭 늘려 총 22인의 장학생에게 1인당 500만 원씩 총 1억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규모로 확대됐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음악 분야 이석준 교수, KT&G 지속경영본부 이상학 본부장, 한국메세나협회 이충관 사무처장과 장학생, 학부모 등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존 장학생 12명과 신규 장학생 10명 등 총 22명이 장학증서를 받았다.

이상학 본부장은 "KT&G장학재단은 예체능 장학사업을 통해 조금씩 세상을 바꿔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타고난 재능에 노력을 더해 영재가 아닌 세계적인 인재로 거듭날 것을 믿는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2016년부터 지원받고 있는 선고는 양(피아노 전공)은 "KT&G장학재단의 지원으로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었고, 지원에 힘입어 이화경향 콩쿠르와 같은 대회에 입상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전하는 행복한 음악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KT&G장학재단은 2008년 설립 이래로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장학사업을 진행해 학업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장학생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단발적 지원이 아닌, 진정성과 지속성 있는 장학사업을 추구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예체능 특기자 장학사업을 시작해 예체능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세계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암 경험자에 대한 ² 공감과 소통의 무대

올림푸스한국 & 예술의전당, 한국혈액암협회

암환우와 가족 등 600여 명을 초청해 진행된 올림푸스한국의 <올림#콘서트> 이모저모




올림푸스한국이 후원하고 예술의전당, 한국혈액암협회가 함께 기획한 '올림#콘서트'가 지난 6월 2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됐다. 올림푸스한국은 암으로 인해 아픔을 겪었던 환우들과 그 가족들 600여 명을 무료로 초대해 아름다운 선율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을 선물했다. 실제로 이날 콘서트에서는 거동이 불편해 목발 등 의료장비를 착용한 사람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공연은 전통적인 클래식과는 달리 연주자와 객석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홍승찬 교수의 기획 아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김대진과 그의 8명의 제자인 문지영, 김예빈, 이현희, 박영성, 황건우, 유성호, 정규빈, 이민준 등이 무대에 올랐다. 이를 통해 4명의 연주자가 한 대의 피아노를 함께 연주하는 에이트 핸드스(8 Hands), 6명의 연주자가 두 대의 피아노를 연주하는 트웰브 핸드스(12 Hands) 등 독특한 편성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여기에 더해 암을 겪었던 환우와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 등이 연주자로 참여해 감동을 더했다.

이번 '올림#콘서트'에는 골수이식 등 힘든 치료 과정 끝에 혈액암을 극복하고 비올리스트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송민희 씨가 특별 연주자로 초대됐다. 그는 로프 뢰블란이 작곡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따뜻한 음색으로 연주하며 피날레를 장식했고, 관중들의 힘찬 박수를 받았다.

홍승찬 교수는 "의료장비와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앞만 보고 달려오던 이들이 함께 만나 오늘 첫 결실을 맺었다"며, "이 공연은 11월과 내년 3월 등 앞으로도 이어지는 만큼, 더 많은 환우분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림푸스한국은 '올림#콘서트' 외에도 장기입원 청소년 대상 사진예술 교육 프로그램인 '아이엠 카메라(I Am Camera)'를 비롯해 취약계층 노인들의 장수사진을 촬영하는 '블루리본 프로젝트', 낙도와 농어촌, 독거노인과 장애인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름다운 공존! 에코리더가 되자 ³

<헬로 초록씨>

플레이즈파크 & 헬로우뮤지움


헬로우뮤지움 동네미술관의 특별 기획전시 <헬로 초록씨>가 지난 7월 13일 개막했다. 1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전시 <헬로 초록씨>는 현대미술작가 9명과 과학자 1명이 협업해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기획한 전시다.

전시에 참여한 현대미술작가들은 회화, 설치, 사운드아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로, 과학자 김선명과 함께 19점의 작품을 제작했다. 김지수 작가가 거대한 반 동형 장치를 만들고 그 아래에 이끼를 깔아 아이들이 작품의 위·아래를 오가며 이끼의 냄새를 맡고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의 사운드 아티스트 헤미 클레멘세비츠는 소리와 진동에 의해 모양과 무늬가 바뀌는 사이매틱스 원리를 활용해 작품을 만들었다. 작가가 천둥, 빗소리 등 자연에서 채취한 소리를 스피커로 틀어놓고, 그 위에 탁구공을 올려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에 따라 탁구공이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튀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 외에도 김선우, 손채수 등의 작가들은 곡식과 도토새 등을 표현한 회화 작품과 해양쓰레기를 채취해 북극곰을 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한

과 환경 파괴문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여름방학을 맞아 8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8시까지 미술관을 연장 개장하고, 옥상에서 어린이들이 신나게 물감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루프탑 드로잉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총 90분간 진행되는 이 전시·체험 프로그램은 예술과 과학적 원리를 결합한 19가지의 작품을 통해,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탐구할 수 있도록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7년 개관한 헬로우뮤지움은 국내 최초의 사립 어린이 미술관으로, 현대미술과 관련한 예술교육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을 통해 결연을 맺은 플레이즈파크는 서울 성동구와 경기도 이천시에서 대형 어린이 놀이 공간인 플레이즈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헬로우뮤지움과 마케팅 및 전시교류 차원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미술관 또는 플레이즈파크 입장 관련 마케팅 외에 플레이즈라운지 내에 헬로우뮤지움 소장 작품을 전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어린이 대상의 생태환경 기획전시 <헬로 초록씨>





동두천시의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로 거듭난 '동두천 캠프보산거리예술 프로젝트'



경기도미술관과 동두천시의 공동협력 프로젝트인 <동두천 캠프보산 거리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가 '그래피티 아트'로 다시 태어났다.

'동두천 K-ROCK 빌리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2004년 미군기지 이전 이후 침체됐던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를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다.

1990년대까지 이곳은 음식점, 클럽 등 400여 개의 점포가 영업을 할 정도로 변화하였지만 미군 감축 등으로 일부 업소만 남아 명맥을 유지해왔다. 경기도미술관은 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이 공간을 새롭게 꾸미기에 나섰다, 2015년부터 4년간 한국·태국·러시아·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에서 18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외국인관광특구 일대를 예술공간으로 변모시켰다. 특히 2018년에는 국내 최초로 지하철 교각을 활용한 환경미술을 선보였으며, 이탈리아의 조이스(Joys) 작가와 프랑스의 호파레(Hopare), 스위즈(Swiz) 작가 등이 참여했다.

조이스 작가는 "도심의 교각은 많은 낙서와 불법적인 광고물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소외된 공간으로 인식된다"며, "이러한 차가운

이미지의 교각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호파레 작가는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보산동의 특징을 살려 6개 대륙을 대표하는 인종의 얼굴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그려놓음으로써 '누구나 같으며, 아름답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프랑스 출신의 사진작가 니코(Nico)가 담백하게 담은 동두천의 거리 모습은 사진책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경기도미술관 관계자는 "지하철 교각 기둥과 거리 곳곳의 건물들이 색색이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미군기지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려고 노력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공미술이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두천시와 경기도, 경기관광공사는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적 고민을 예술과 거리축제를 통해 개척하는 선구적인 사례를 일곱 계획이다. ▼

4 침체된 도시를 밝히는 그래피티 아트

제이앤비글로벌기획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루마니아의 현대미술을 만나다
코오롱 스페이스K <감시자의 눈>



문화예술 나눔공간 스페이스K 과천에서는 7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문화축제 <감시자의 눈: Romanian Eyes> 전시를 개최했다. 마리우스 베르체아(Marius Bercea)와 블라드 올

라리우(Vlad Olariu), 레오나르도 실라기(Leonardo Silaghi), 미르체아 텔리아가(Mircea Teleaga) 등 루마니아 청년 작가 4명의 작품 16점이 이번 전시회에 출품됐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흔적과 개방으로 인한 사회 체제 변화, 산업화돼 가는 도시화의 이면 등 현대 사회의 무거운 주제를 다뤘다. 전시 기간 중에는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인 'ROMAN:TIC MOBILE'을 진행했다. 루마니아는 봄이 시작되는 3월에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흰색과 붉은색 실의 리본을 주고 받는 '마리티소르'라는 전통문화가 있다. 관람객들은 코오롱 FnC의 업사이클링 브랜드 'RE:CODE(레코드)'와 함께 마리티소르의 의미를 담아 모빌을 만들며 큰 호응을 보냈다.

'예술단체 경영을 돕는다'
벽산엔지니어링 김희근 회장, 예술경영지원센터 이사장 임명



벽산엔지니어링의 김희근 회장이 지난 7월 20일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이사장으로 임명돼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기관 단체들의 경영 활성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교류와 인력 양성, 정보지원, 컨설팅 분야의 다양한 매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 1월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재단법인이다. 김희

근 이사장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10여 년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인지를 예술계와 외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롭게 발굴한 젊은 예술가들의 참신한 무대
두산아트센터 DAC Artist 이승희, 윤성호 공연

두산아트센터 'DAC Artist'로 선정된 이승희가 판소리 <동초제 춘향가-

몽중인 夢中人> 공연을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윤성호가 연극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을 10월 5일부터 27일까지 두산아트센터 Space111에서 공연한다. 이승희는 전통 음악을 넘어 음악,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소리꾼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판소리 <동초제 춘향가-몽중인 夢中人>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춘향과 몽룡의 남녀 간 사랑을 넘어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며 고군분투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윤성호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부조리한 모습에 대해 탐구하는 극작가이자 연출가다. 연극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은 안톤 체츠희의 <바냐 아저씨>를 모티브로 재창작한 작품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7인의 인물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본다.



음악영재의 산실로 한국 클래식을 이끈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금호영재 20주년을 기념하며: Here and Now>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금호영재콘서트>의 2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20~21일, <Here and Now: 금호영재 20주년을 기념하며> 공연을 개최했다.

1998년부터 시작된 음악영재들의 무대 <금호영재콘서트>는 지금까지 1천여 명에 이르는 금호영재 음악가를 배출,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주축이 됐다.

첫날에는 특별 프로그램 'Kumho Talk'이 마련돼 비올리스트이자 지휘자인 이승원과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앙코르 체임버 뮤직 대표인 조진주가 무대에 올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뒤이어 피아니스트 박진형·이택기·김강태·정규빈의 연주를 비롯해 플루티스트 조성현과 한여진의 듀오 연주, 첼리스트 이호찬과 바이올리니스트 이재형, 비올리스트 이서현의 금호영재 패밀리 트리오 연주, 사제지간인 첼리스트 이정란과 남유리나가 듀오 무대를 펼쳤다. 마지막으로 세대별 대표 첼리스트 선후배가 모인 12대의 첼로 연주로 금호영재 20년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게 했다.

**손얼음이 연주하는 모차르트의 열정
크레디아 프로젝트 <아마데우스>**



2011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21번으로 최고 연주자상을 수상했던 손얼음이 2016년 타계한 전설적인 지휘자 네빌 마리너(Sir Neville Marriner) 경을 추모하고자 음반 <모차르트>를 발매하고 특별 공연 <아마데우스>를 준비했다. 손얼음은 2016년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 필즈(ASMF) 내한 공연에서 네빌 마리너 경과 함께 협연한 후 그의 제안으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전곡 녹음을 시작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공연은 음반에 수록된 피아노 협주곡 제21번과 제8번을 더해 그만의 음악적 깊이를 담아 10월 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인디 뮤지션 위한 새로운 채널 플랫폼의 탄생
CJ문화재단 '아지트 라이브 세션' 론칭**



CJ문화재단은 음악콘텐츠 스타트업 스페이스오디와 함께 인디 뮤지션들을 위한 모바일 전용 라이브 시리즈 '아지트 라이브 세션'을 론칭했다. '아지트 라이브 세션' 콘텐츠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CJ문화재단 페이스북 등 다양

한 온라인 채널에 게재된다.

CJ문화재단은 2010년부터 한국 인디 음악계를 중심으로 젊은·신인 뮤지션들을 '튠업(TUNE UP)' 아티스트로 선발해 앨범 제작부터 CJ아지트 녹음 스튜디오 및 공연장 시설, 국내외 무대 기회까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들을 지원해 왔다. CJ문화재단 이용권 사무국장은 "유튜브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뮤지션들이 국내외 음악 팬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음악 팬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더 많은 다양성 음악을 만날 수 있도록 큐레이터 역할을 적극 수행해 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물리적·시간적 경계를 탐구한 재개발의 어제
한미사진미술관 박기호 개인전 <그 이후... Silent Boundaries>**

한미사진미술관에서는 8월 25일~10월 20일, 박기호의 개인전 <그 이후... Silent Boundaries>를 개최한다. 박기호는 포토저널리스트로 출발해 1987년부터 20년간 국내에서 외신 사진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국내외 광고 상업사진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그는 한국에 체류하며 4년이 넘는




통일로, 2013 ©박기호

시간 동안 <Silent Boundaries> 연작을 진행했다. 저널리즘과 상업주의를 오간 그의 경험이 농익어 나온 이번 전시는 그의 사진 인생 30년을 가감 없이 보여줄 것이다.

**동시대 음악의 새로운 경향을 만난다
현대카드 후원, 서울시향 <2018 아르스 노바 시리즈 III&IV>**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이 10월 19일과 26일에 <2018 아르스 노바 시리즈 III&IV> 공연을 연다. 올해로 13주년을 맞은 <아르스 노바>는 우리나라 음악계에 동시대의 경향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현대음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카드의 후원으로 열리는 올가을 <아르스 노바>는 실력파 음악가들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에서 가장 주목받는 현대음악 전문 지휘자인 롤란트 클루티히가 지휘를 맡는다. 10월 19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아르스 노바 III-실내악 콘서트>는 조르주 에네스쿠, 프랑코 도나토니를 비롯해 현대 독일 음악의 '깊이 감춰둔 비밀'로 불리는 프리드리히 고드만 등 20세기 작곡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소개한다. 서울시향이 위촉한 김지향의 신작도 세계 초연된다. 26일 <아르스 노바IV-관현악 콘서트>에서는 서울시향이 필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등과 공동 위촉한 요르크 힐러의 비올라 협주곡이 아시아 초연된다.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타베아 치머만이 협연자로 나서서 풍부하고 다채로운 음향의 세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September 9

뮤지컬 <바넘> 위대한 쇼맨

8.7~10.28 / 총무아트센터 대극장



뮤지컬 <바넘> 위대한 쇼맨은 서커스를 지상 최대의 엔터테인먼트로 만들어낸 바넘의 생애를 기반으로 한 작품이다. 탄탄한 작품성을 기반으로 토니상 3개 부분과 올리비에상 남자주연상을 수상한 걸작으로, 기존 뮤지컬에서는 볼 수 없는 서커스를 극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쇼 뮤지컬이다.

<나는 코코 카피탄, 오늘을 살아가는 너에게>展

8.2~2019.1.27 / 대림미술관

세계적인 브랜드와 매체가 주목하고 있는 코코 카피탄의 전시 <나는 코코 카피탄, 오늘을 살아가는 너에게>가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사진, 페인팅, 핸드라이팅, 영상, 설치 등 총 150여 점의 다채로운 작품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짙은 색감과 정형화되지 않은 구도, 밀레니얼 세대를 대변하는 듯한 솔직하면서도 대담한 자기표현, 성장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민과 불안이 담긴 스토리를 통해 공감과 감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영주 <물렁뼈와 미끈액>展

8.22~9.19 / 두산갤러리 서울



임영주는 만 40세 이하의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다양한 형태로 실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두산아트랩'의 2017년 선정작가다. 영상을 중심으로 회화, 텍스트, 조각 등 다양한 매체를 다루면서 확신할 수 없는 믿음과 그러한 믿음의 구조에 대해 탐구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 과학적인 듯한 것과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뒤섞여, 확신할 수 없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9.4~.10.1 / 명동예술극장

동아연극상, 대한민국연극대상, 2015 올해의 연극 베스트3 등 주요 연극상을 모두 수상하며 찬사 받은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이 다시 공연된다. 장엄한 원작에 특유의 재치 있는 대사를 녹여내어 예술성과 대중성의 완벽한 조화를 구현한 연출가 고선웅과 관객을 압도하는 절절한 연기로 극찬을 받은 '정영'역의 하성광 등 초연 출연진, 스태프가 모두 합류해 감동을 이어간다.



<베스트 앤 퍼스트> 시리즈

9.4~10.7 /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국내 신작 무용과 해외 연극을 모은 기획제작 프로그램 <베스트 앤 퍼스트(Best & First)>가 무대에 선다. 신작 무용은 <Post 2000 발레정전>, <마크툽>, <오피움>, <구조의 구조> 등이고, 해외 연극은 <돼지우리>, <X>, <아라비안나이트>, <크리스티스> 등이다. 이들 작품 중에서 <X>는 영국이 자랑하는 연극계의 총아 알리스테어 맥도웰의 작품으로, 명왕성 탐사대원이 지구와 교신에 끊겨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적인 선택의 범주를 탐구해본다.



NT Live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 <줄리어스 시저>

9.6~9.15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NT Live(National Theatre Live)는 영국 국립극장이 영미권 연극계의 화제작을 촬영해 전 세계 공연장과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는 국립극장이 2014년 3월 최초로 도입해 총 12개 작품을 선보였다. 15세 소년의 특별한 모험을 그린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은 2012년 영국에서 초연한 이후 로런스 올리비에상과 토니상을 휩쓸며 세계 연극계에서 주목을 받은 기대작이다. <줄리어스 시저>는 2018년 1월 초연한 따끈 따끈한 신작으로, 가혹한 정치극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기대를 모은다.

연극 <운명>

9.7~9.29 / 백성희장민호극장

우리 연극사에 의미 있는 희곡들을 발굴해 선보여온 국립극장단의 근현대 희곡 시리즈 9번째 작품은 신극의 새로운 장을 열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윤백남의 <운명>이다. 1920년대 하와이를 배경으로 조선 이민자들의 삶을 경쾌하게 때론 가슴 아프게 담아낸 작품으로 <자상의 모든 밤들>, <맥베드>의 연출가 김낙형의 섬세한 해석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뮤지컬 <마틸다>

9.8~2019.2.10 / LG아트센터



뮤지컬의 본고장 웨스트엔드의 최신 뮤지컬 <마틸다>가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마틸다>는 139년 전통의 영국 최고 명문극단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가 뮤지컬 <레미제라블> 이후 25년 만에 새롭게 탄생시킨 뮤지컬로, 아시아 최초이자 비영리 최초 공연이다. 성인 배우

와 아역 배우들의 개성 넘치는 연기는 물론, 똑같은 난이도의 칼군무를 선보이는 작품으로, 엄청난 에너지와 카타르시스를 관객들에게 선사할 것이다.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극장지배인>, <음악이 먼저, 말은 그 다음>

9.12~9.16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오페라를 같은 날,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기회가 펼쳐진다. 세기의 라이벌로 불렸던 두 작곡가에 대한 당대와 후대의 평가 일치할지, 작곡가의 다른 매력을 비교하며 보는 재미를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세심한 상상력과 표현력, 재능 있는 출연진이 선보이는 유쾌한 오페라 공연으로 기대를 모은다.



미클로시 페레니의 차이콥스키 ① & ②

9.14~9.15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헝가리 출신의 전설적인 첼리스트 미클로시 페레니가 한국을 찾는다. 페레니는 첼로의 거장 엔리코 마이냐르디와 파블로 카잘스를 사사한 70세의 노장으로, 차이콥스키의 대표적인 첼로 레퍼토리인 <로코코 변주곡>과 <안단테 칸타빌레>를 연주한다. 한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인 마르코 레토나가 라벨의 <어미 거위 모음곡>과 바르토크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파이널 판타지 콘서트> 디스턴트 월드

9.15~9.16 / 롯데콘서트홀



<파이널 판타지>는 1987년 첫 출시한 게임으로 30개의 시리즈, 5편의 영화가 출시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게임 콘텐츠다. 롯데콘서트홀에서 공연되는 <파이널 판타지 콘서트> 디스턴트 월드>는 그레미상 수상에 빛나는 미국 유명 지휘자 아니 로스(Arnie Roth)의 지휘로 스크린에 비춰지는 화려한 게임 영상과 음악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이널 판타지 마니아들과 음악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북유럽의 신비 속으로'

9.28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북유럽의 아름다운 자연과 민족 고유의 정서를 섬세한 음악으로 표현한 작곡가 시벨리우스와 그리그의 작품이 KBS교향악단 공연에서 펼쳐진다. 러시아의 압제와 위협을 음악적으로 저항한 시벨리우스의 <투오넬라의 백조>와 교향곡 제2번, 노르웨이의 서정적인 자연을 그려낸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가 무대에 오른다.

파비오 루이지 초청 KBS교향악단 특별 연주회

10.13~10.14 / 롯데콘서트홀, 통영국제음악당
 세계적인 거장 파비오 루이지가 KBS교향악단을 지휘한다. 파비오 루이지는 후기 낭만음악 작곡가 브루크너의 교향곡 제9번을 연주하며 유려한 구성미를 뽐낼 계획이다. 특별 연주회에는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협연자로 참여,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20번을 연주한다. 독주와 협연, 앙상블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피아니즘을 선사하는 임동혁의 연주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효성과 함께하는 요요 마 & 실크로드 앙상블

10.17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효성과 함께하는 요요 마 & 실크로드 앙상블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연다. 2004년 첫 내한 이후 여섯 번째 공연이며,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20년을 기념하는 무대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제1번 <사라반드>, 미도산 민요 모음곡 및 즉흥곡 외에 한국과 베트남의 전통음악을 연주할 계획이다.



창극 <변강쇠 집 짝고 옹녀>

10.18~10.21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2014년 초연 이래, 국립창극단 대표 레퍼토리가 된 <변강쇠 집 짝고 옹녀>가 고선웅 연출과 한승석 음악감독을 통해 초심에서 다시 시작해 드라마와 음악을 재정비한다. CJ토월극장의 무대 깊이를 활용한 미장센, 국내외 공연을 통해 한층 다져진 국립창극단원들의 물 오른 연기와 차진 소리 등으로 관객의 작품에 대한 몰입감을 더 높일 계획이다. 힘든 운명을 개척하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는 이 시대 모든 여성들을 위한 작품이다.



KBS교향악단 제735회 정기연주회

10.19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엘렌 그리모가 KBS교향악단과 만나 협연한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유럽에 전파된 미국 재즈의 영향이 물씬 느껴지는 작품으로 인기 높다. 엘렌 그리모는 재즈 특유의 끈적이는 당김을, 현란한 즉흥 리듬을 선보이며 듣는 즐거움을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이번 공연에서는 라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이베르의 <기항지>가 함께 연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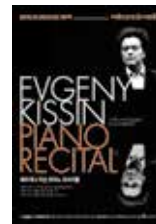
<네덜란드 댄스시어터> 내한 공연

10.19~10.21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현대무용의 살아있는 신화를 쓰고 있는 네덜란드 댄스시어터가 예술의전당 개관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이번 공연에는 예술감독 폴 라이트풋과 예술고문 솔 레옹이 공동작업한 <Safe as Houses>와 <Stop-Motion>,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9월에 세계 초연 예정인 마르코 피케의 신작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에프게니 키신 피아노 리사이틀

10.28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피아니스트 에프게니 키신이 네 번째 내한 리사이틀을 갖는다. 한국을 찾을 때마다 매진 사례를 일으키며 그 해 예술의전당 최다 관객 동원을 기록하는 진기록을 세웠던 그의 연주를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29번 <함머클라비어>와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을 연주한다.



발레 <라 바야데르(La Bayadère)>

11.1~11.4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프랑스 출신 안무가이자 고전발레의 아버지인 마리우스 피티파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레 <라 바야데르>가 무대에 오른다. 프랑스어로 '인도의 무희'를 뜻하는 <라 바야데르>는 피티파가 러시아 황실 발레단을 위해 만든 작품으로, 이국적인 배경과 드라마틱한 이야기, 150여 명의 무용수, 400여 벌의 화려한 의상과 웅장한 무대를 자랑하며 고전 발레의 명작으로 손색없다.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11.3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창단 150주년을 맞는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가 새로운 음악감독으로 부임한 마에스트로 파보 예르비와 함께 내한한다. 이번 공연에는 그 누구보다 치밀하고 강력한 말러 교향



곡 제5번으로 한국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피아니스트 카티아 부니아티쉬빌리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협연한다.

국립무용단 <더 룸(The RoOm)> & <가무악찰체>

11.8~11.10, 11.22~11.24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1962년 창단 이래 압도적인 스케일의 대형 작품을 선보여 온 국립무용단이 우리 춤을 더욱 가까이 즐길 수 있는 중극장 레퍼토리 관객과 만난다. 전통을 바라보는 기존의 관념을 탈피하고 젊은 감각으로 선보이는 <더 룸(The RoOm)>, 우리 춤의 현대화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끝에 결실을 일궈낸 <가무악찰체>가 그것이다. 젊고 독창적인 시각, 한국무용 대가의 무게감이 돋보이는 신작으로 관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다.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 안토니오 파파노

11.15~11.16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10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문 음악단체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와 음악감독 안토니오 파파노가 내한 공연을 펼친다. 첫날에는 린스키 코르사코프의 오페라 <보이지 않



는 도시, 키테즈의 전설> 모음곡과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3번(다날 트리포노프 협연),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4번을 연주한다. 다음 날에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2번과 피아노 협주곡 제3번(조성진 협연), 교향곡 제5번을 연주할 예정이다.

서울시향 '2018 오스모 벤스케와 이안 보스트리치'

11.17~11.18 / 롯데콘서트홀
 서울시향의 '올해의 음악가'로 선정된 세계적인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와 클래식계의 촉망받는 지휘자 오스모 벤스케가 한국 무대에 선다. 이번 공연에서는 브람스의 <비극적> 서곡과 말러의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모음곡 중 네 곡, 프로코피예프의 교향곡 제5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함께하는 메세나

회원사 소개

회장사	간삼건축	동일방직	삼환기업	제일기획	한화손해보험
일신방직	강원랜드	동일FnG(주)	삼양커뮤니케이션즈	조선호텔	한화케미칼
부회장사	공간그룹	두리비전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조은시스템	현대백화점
교보생명보험	광주요	(주)두산	서울예술기획	중이문화재단	현대자동차
(주)노루홀딩스	금융투자협회	두산 산업자랑(주)	서울옥션	주식회사 차오름에프앤비	현대중공업 현대예술관
동성코퍼레이션	금호건설	두산건설	(주)성도GL	지앤이어링코리아	현대차 정몽구 재단
벽산엔지니어링	금호고속	두산엔진(주)	세일ENS	청림출판	(주)호텔롯데
삼성미술관(삼성문화재단)	금호타이어	두산연강재단	세화예술문화재단	카카오	(주)호텔롯데 면세점
삼양홀딩스	금호홀딩스	두산인프라코어	소니코리아	컨슈머타임스	호텔신라
설원량문화재단	금호미쓰이화학	두산중공업	(재)송원문화재단	케이옥션	홈플러스
세아제강	금호석유화학	롯데렌터카	(주)스파르터내쇼날	코카콜라음료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주)유니드	금호폴리켄	롯데문화재단	신라교역	(주)크레디아프로젝트	휠라코리아
종근당	금호피앤비화학	롯데백화점	신성씨에스	(주)클라우드나인마케팅	휴맥스
코오롱그룹	김영사	르노삼성자동차	신한금융투자	태영건설	BMW코리아(주)
크라운-해태제과	나라삼양감속기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신한은행	퍼시스	BNK경남은행
풍산그룹	나라통상(주)	(주)모나미	신한카드	포스코ICT	BNK부산은행
한화갤러리아	(주)나우피플	목천김정식문화재단	아시아나HDT(주)	프라이개발	CJ문화재단
현대해상화재보험	네이버문화재단	문화유산국민신탁	아시아나에어포트(주)	필립모리스	GA KOREA Outlet & Resort
효성	네이처스웨일리코리아	미디어월	아시아나항공	(사)한국FPSB	GS칼텍스재단
이사사	(주)노루케미칼	미래에셋대우	아이엔지생명	한국GM	(주)HK
가현문화재단	(주)노루오토코팅	법률사무소 C&B	(주)아이피케이	한국경영자총협회	IBK기업은행
고려당	베이루페인트	베이글카페	(주)에스원	한국공항공사	KB국민은행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녹십자	보령제약(주)	영앤임섬 주식회사	한국공항주식회사	(재)KBS교향악단
디자인하우스	뉴서울 컨트리클럽	본아이에프(주)	오리콤	한국광고주협회	KDB생명
사라	뉴스킨 코리아(주)	불보건설기계코리아	오비맥주 주식회사	한국국제교류재단	KEB하나은행
(주)신세계	뉴욕제과	(주)브레드가든	올림푸스한국(주)	한국남동발전	KT
이건홀딩스	다보성고미술전시관	빌모트 건축사무소 한국지사	와이에스케이미디어	한국마사회	KT&G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다진	삼성SDI	우리종합금융	한국무역협회	LG생활건강
파라다이스그룹	대림산업	삼성SDS	(주)우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LG전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상	삼성물산	우진건설(주)	한국서부발전	LG화학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상문화재단	삼성생명	원마운트	한국수력원자력	LH
한성자동차	대상산업가스	삼성서울병원	원암문화재단	한국암웨이	LMS
POSCO	대진증권	삼성엔지니어링	원포시스(주)	한국예탁결제원	OCI
SK SUPLEX추구협의회	대우건설	삼성전자	유안타증권	한국전력공사	SK건설
사회공헌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삼성중공업	유중아트센터	한맥도시개발	SK네트웍스
LG연암문화재단	대한제분	삼성증권	이상일문화재단	한미회계법인	SK에너지
회원사	(주)대한항공	삼성카드	이건산업	한미약품	SK증권
경남스틸	더페이스샵코리아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인산죽영 주식회사	한빛문화재단	SK텔레콤
가나아트갤러리	도서출판 '삶과 꿈'	(주)삼양인터내셔널	인터파크 큐브릿지	한세실업	SK해운
	동서식품	삼익문화재단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주)한진	TCC동양
	동아쏘시오홀딩스	삼일회계법인	재단법인 송강재단	(주)한화	
	동아출판	(주)삼화에프앤에프	제우인베스트먼트(주)	한화생명	

NEW M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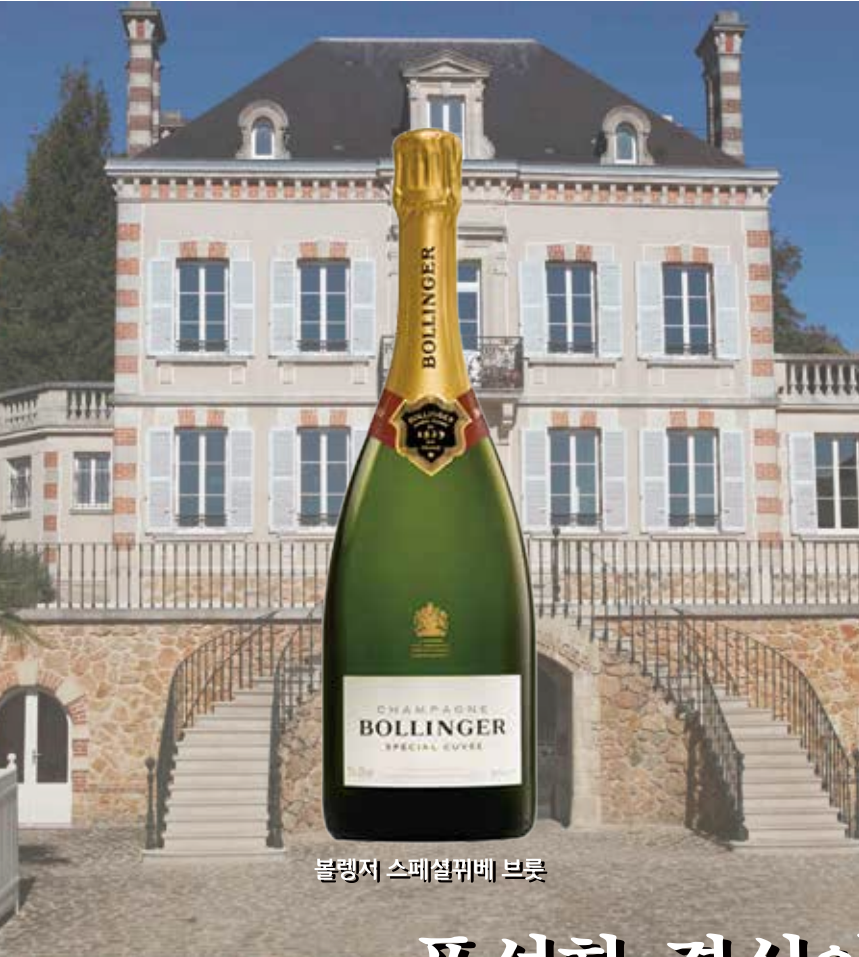


Wilmotte & Associés는 건축가이자 도시 계획가, 디자이너인 장 미셸 빌모트(Jean-Michel Wilmotte)에 의해 1975년에 설립된 국제적인 건축회사다. 프랑스 파리에 본사, 니스에 지사가 있고, 영국(Wilmotte UK Ltd)과 이탈리아(Wilmotte Italia Srl)에 진출해 있으며, 한국에도 지사를 설립해 현재 25개 국적의 270명의 건축가, 도시 기획자, 디자이너, 박물관 전문가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두고 있다. Wilmotte & Associés는 28개국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럭셔리, 병원, 숙박, 주거,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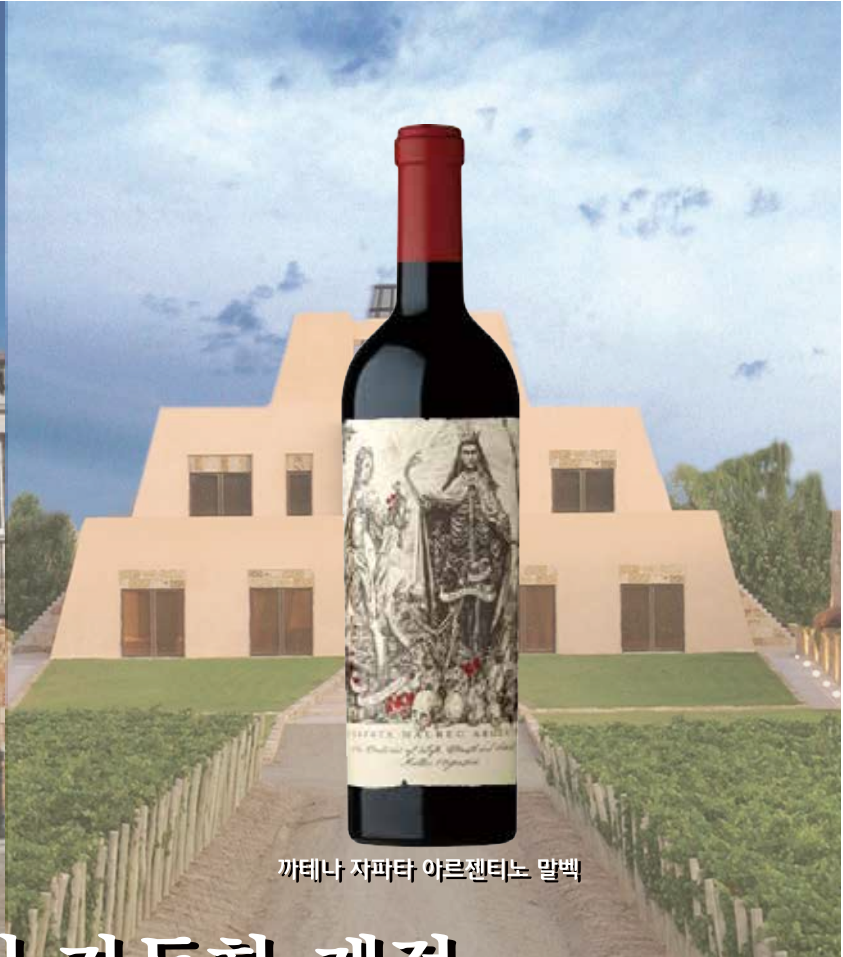
함께하는 메세나
회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18.1~8)



회원사에서 주시는 회비는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투자비로 쓰이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볼링저 스페셜꾸베 브룻



카테나 자파타 아르센티노 말벡

풍성한 결실이 가득한 계절



카스텔지오콘도 브루넬로디몬탈치노



로버트몬다비 까베르네소비뇽